

사랑이여 메

Issue 136 \ August 2018
08

땅끝지역아동센터의
배다현씨
행복주주가 되다

독립유공자 후손들
우리가 돌봐드립니다







나눔의 길 위에서 삶을 배웁니다

누군가는 여행의 길에서,
책 속의 어느 한 구절에서,
우연히 보게 된 영화 속 어느 찰나에서,
인생을 배운다고 합니다

사랑의열매를 왼쪽 가슴에 단 저는,
'나눔'이라는 길 위에서 만난 이들을 통해 삶을 배웁니다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인해
어려워진 가게 운영으로 아이들 학비마저 삶의 힘겨움으로 다가왔을 때,
사랑의열매 장학금 지원으로 한 고비, 두 고비를 넘기셨다면
어느 가게 사장님.

그는 지금 '착한가게'로 꾸준히 사랑을 보내주고 계신 기부자입니다.
삶의 껍떡함이 조금 가시자마자
힘겨웠던 시기에 받았던 사랑과 손길이 고마워
다른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전해 달라며 나눔의 길을 걸어가는 그에게서
무엇이 참된 삶인지 배우게 됩니다.

목차



08



First Person

행복주주로 나눔 보는 땅끝지역아동센터 배다현씨

12



현장

사랑의열매 행복주주총회 토크콘서트

14



특집

독립유공자 유족 돕기

20



포커스

김정숙 여사, 사랑의열매 기부자 청와대 초대

22



화제

아침에 맡기면 오후엔 뽕송뽕송... 어르신 이불 빨래 끝

24



착한기업

포스코

30



희망스토리

주민과 청소년이 손잡고 '내가그린(Green)마을'

32



착한일터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

34



착한가게가 있는 풍경

강원 삼척



Cover



배다현씨(왼쪽)와 아내 이화미씨,
그리고 생후 70일 된 하연이.
이들에겐 '나눔 DNA'가 있다.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나누는 게
당연하다는 배씨 부부는 딸 하연이도
나눔을 행하는 아이로
키우겠다고 했다.



38

The Page

나 자신에게 먼저 나눠 줘야 남에게도 나누는 마음 생겨

40

Alive CCK(Community Chest of Korea)

강원 공동모금회

44

나눔 리포트

소액 모아 태산 만드는 개인기부의 잠재력

46

나의 나눔 이야기

한동네 4만 온라인 회원이 펼치는 아동다용 나눔 한마당

47

모금회 뉴스

중앙회·전국 17개 지역별 소식

57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결심, 고맙습니다!

58

독자 페이지



사랑의열매 vol. 136 2018 / 8

발행인 예종석

발행일 2018년 8월 / 통권 136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9 사랑의열매 회관 5층

만든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외홍보본부

구독안내 tel 02-6262-3000 fax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편집디자인 조선뉴스프레스 tel 02-724-6783

인쇄 (주)타라TPS tel 031-939-2049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하며,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모이면, 희망이 보입니다.

사랑의열매는 개인기부 33만 명, 착한가게 2만 3,184여 곳,
아너 소사이어티 1,772회원과 기업 28,047개의 참여로
매년 더욱 풍성하게 열립니다.

201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 **5,553억 원**
(81만 건)은 국내 10대 자선단체와 모금기관의
국내 공익사업비 지출 1조 600억 원의
절반이 넘습니다. <출처_한국가이드스타>

빈곤 지원
3,990억

질병 지원
749억

소외 지원
814억



빈곤
분야 지원액

기초생계
2,567억

교육·자립
925억

주거·환경
498억

질병
분야 지원액

보건·의료
607억

심리·정서
142억

소외
분야 지원액

사회적돌봄
377억

소통·참여
260억

문화경차해소
177억

2017년 총 지원액

5,553억

기부상담 080-890-1212

ARS기부 060-700-1212

·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997년 제정)에 의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정 모금 전문 기관입니다.
·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가장 투명한 기부금 관리,
공정한 지원절차로 대한민국의 민간 복지를 이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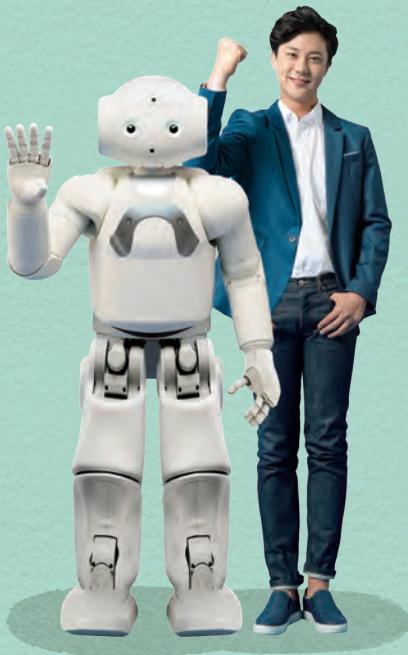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나눔의 새로운 길

사랑의열매가 시작했습니다

가난으로 꿈을 잃어버린 아이들과 청년들이 스스로 굴레를 끊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방법을 지원합니다.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꿈을 이루는 기회를 줍니다.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는 14~24세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진로지원을 돕는 '희망플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부상담 080-890-1212 | ARS 기부 060-700-1212

First Person

●
글 한상현 사진 이신영



해남 땅끝지역아동센터 출신 아이들

어릴 때 받았던 도움 행복주주로 되겠다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사랑을 나눌 줄 안다. 전라남도 해남군 땅끝마을에 있는 땅끝지역아동센터 출신 배다현씨는 남모르게 후원해 준 많은 분의 사랑을 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는 10년째 동전을 모아 기부한다. 그리고 행복주주가 됐다. 한 아이의 아빠가 된 지금, 그 사랑이 더 커졌다.

공부방 설립한 배요섭 목사의 둘째 아들

사랑의열매 행복주주총회에 아주 특별한 이들이 초청받았다. 우리나라 최남단의 땅끝마을에 있는 땅끝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이다. 영화배우 문근영씨의 기부를 통해 문 단을 위기에 처했던 공부방이 각종 편의 시설까지 갖춘 지역아동센터로 새롭게 태어났던 사연은 많은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런데 이곳 아이들이 동전을 모아 10년째 기부를 하고 있다.

땅끝지역아동센터에서 먹고 자고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던 배다현(28)씨도 이제 어엿한 가장이 되어 행복주주총회에 참석했다. 그 사이 아이도 태어났다. 그는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잊을 수 없어 평생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다고 했다. 지금도 땅끝지역아동센터와 함께 동전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나눔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저 받은 것은 거저 쥐야 한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액수가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은 나누면 커집니다.”

배다현씨가 생활했던 땅끝지역아동센터는 사연이 있는 곳이다. 땅끝아름다운교회 배요섭·김혜원 목사 부부가 일을 나가는 부모들을 대신해 마을 아이들을 맡아 돌봐주면서 ‘땅끝공부방’으로 시작됐다. 배 목사의 둘째였던 배다현씨는 교회에 온 아이들과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잠도 자며 지내게 된 것이다.

형편 어려웠던 친구들... 많을 땐 40여 명과 함께 생활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 할머니와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아파서 2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혼자 지낼 수 없어 우리 집에서 지냈는데 그 친구보다 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 많았어요. 한두 명 늘더니 나중엔 40여 명의 아이들이 같이 지내게 됐죠.”

배씨의 아내인 이화미(30)씨도 친구의 집에 놀러가서 보았던 그곳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땅끝지역아동센터 배다혜 센터장이 그의 고등학교 친구다.

“엄청 많은 아이가 좁은 곳에서 다 잔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한번은 친구네 집에 놀러가서 ‘넌 어디서 자’라고 물었더니 방 한쪽 구석을 가리키며 ‘여기!’라고 하는데 기가 막혔죠. 그런데 친구의 표정이 천사 같았

땅끝지역아동센터 출신
배다현씨(왼쪽)가 기부를
하기 위해 모은 동전을 들어
보이고 있다. 그 옆은 아내
이화미씨와 딸 하연이.



어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곳이거나 싶었어요.”

‘땅끝공부방’이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를 받게 된 건 2003년 3월이다. 아동보호시설 기준에 미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였던 땅끝공부방은 20여 명의 마을 이장들의 도움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07년 건물주가 교회 부지를 매각하면서 땅끝공부방도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였다. 영화배우 문근영씨의 어머니가 광주일보에 조그맣게 소개된 땅끝공부방의 사연을 보게 되면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문근영씨 이름으로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지은 후 땅끝지역아동센터에 기부를 했다.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통학차량까지 지정기탁해 아이들이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

영화배우 문근영씨, 2007년 폐쇄 위기 사연 듣고 건물 지어 줘

당시 고등학생이던 배다현씨는 땅끝지역아동센터가 생기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되어 기뻐다”고 했다.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을 동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이에 대해 배다현씨는 “제가 동생이 없어 동생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공부 봐주고 어려운 일 해결해 주며 함께 지내다 보니 어느새 가족이 됐다”고 말했다. 평범하고 단란했던 네 식구는 어느새 40명이 넘는 대가족이 되어 있었다.

문근영씨의 기부 외에도 많은 이가 땅끝지역아동센터를 후원해 왔다. 쌀이 떨어지면 쌀을 갖다 놓고가는 등 착한 손길들이 많았다. 정기 후원자들도 생겨났다. 늘 도움을 받기만 하던 이들이 남을 돕기 위해 동전을 모으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

“읍내에 오래된 문구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 아저씨가 어느 날 센터를 찾아오셔서 아이들 치킨 사 먹으라고 돼지저금통을 하나 주고 가셨어요. 점심 값을 아끼고 아껴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



땅끝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지난 1월 그동안 자신이 모은 동전을 가지고 전남 공동모금회를 찾아 희망2018나눔캠페인에 참여했다.

하기도 해서 그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과 이야기하다 우리도 동전을 모아서 기부를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배다현씨를 비롯해 땅끝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2008년부터 각자의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얼마 되지 않는 용돈을 50원, 100원 저금통에 넣기 시작했다. 배차간격이 긴 탓에 학교에서 센터까지 걸어오는 날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차비를 저금통에 넣었다. 마을에서 초등학교까지는 4km, 10리길이지만 아이들은 기부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기꺼이 걸어 다녔다.

“처음엔 기부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큰 관심을 받다 보니 아이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센터 아이들, 돼지저금통에 동전 모아 10년 넘게 기부

땅끝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정성을 다해 모은 동전은 돼지저금통 10개에 담겨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됐다. 저금통에는 10원짜리 186개, 50원짜리 187개, 100원짜리 1,498개, 500원짜리 187개 동전이 들어 있었다. 1,000원짜리 지폐 21장을 포함해 총 27만 5,510원이 이들의 첫 기부였다. 이후 10년을 기부했다. 액수도 점점 늘었다. 매년 동전을 모아 기부할 때마다 아이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보람과 함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성취감에 뿌듯해했다.

배다혜 센터장은 “기부는 감사한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매년 사랑의열매에 기부를 하기 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감사의 시간을 갖는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는다. 땅끝지역아동센터도 기부를 한 지 10년이 됐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배다혜 센터장은 말했다.

“동전 기부 10년을 맞아 도움을 받던 곳에서 도움을 주는 곳으로 행복주주총회에 초대받은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주주총회에 참석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나의 상황이 좋은 좋지 않은 상관없이 기부를 하는 기부영웅들을 직접 만나면서 느낀 점이 많아요. 동전 하나를 기부하더라도 진심을 담아서 꾸준히 기부를 하겠다고 말하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행복주주총회에는 생후 70일 된 최연소 기부자인 배다현씨의 딸 하연이도 참석했다. 배다현씨 부부는 하연이가 앞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함께 동전 기부를 했다. 배다현씨는 매년 땅끝지역아동센터 동생들과 함께 사랑의온도계를 올리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그것이 사랑받은 자의 당연한 자세라고 했다. ❀

창립 20주년
행복주주총회

현장

금 한상현 사진 임영근



사랑의열매 행복주주총회 토크콘서트 사회를 비추는 등불...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기부사례의 주인공들과 정기기부자를 초청해 함께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는 행복주주총회가 열렸다. 올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특별 기부자 20명을 초청해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행복주주와 가족 100여 명, 미담 기부자 20명 초대해 이야기꽃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행복주주총회가 지난 7월 12일 사랑의 열매 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야기가 있는 나눔 -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복주주총회에는 공동모금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특별한 사연의 기부자 20명을 초청해 미담 사례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정기적으로 사랑의열매에 기부하는 행복주주 및 가족 100여 명을 초청해 모금과 배분사업성과 보고회를 갖기도 했다.

이번 행복주주총회 사회는 착한가정에 가입해 나눔을 실천하는 최동석 아나운서가 맡았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예종석 공동모금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 통념상 남을 돕기 어려운 분들이 나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부하는 나눔에 감동했다”며 “20주년의 성인이 된 공동모금회가 좀 더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효진 공동모금회 모금사업본부장의 모금 및 배분사업 성과보고를 간단하게 진행한 후 본격적인 나눔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먼저 한반도의 끝에 위치한 진라남도 해남의 멩끝지역아동 센터 아이들이 행사장을 찾았다. 70일 된 신생아부터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이들까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기부영웅들을 대표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성화를 들고 뒀 김 방락 아너 회원이 자리했다.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는 보통사람들

인천의 내일을여는집에서도 함께했다. 인천 만석동에 자리한 내일을여는집은 쪽방상담소와 무료급식소, 노숙인 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년째 기부를 해오고 있다. 폐지를 줍고, 불펜 조립을 해서 번 돈을 기부해 오고 있다. 이곳은 소설 <괘이부리말 아이들>의 배경이기도 하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택시 내에 사랑의열매 모금함을 비치해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 인천여성운전자회의 이은미 부장과 회원들도 참석했다. 현재 1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1 사랑의열매 정기기부자들이 나눔의등불을 들고 있다. 2 땅끝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포토வில்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3 나눔 토크콘서트에서 환경미화원 신용선씨가 자신의 기부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다. 4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 다문화어린이합창단인 라온제나 합창단의 축하 공연.

있는 인천여성운전자회는 올해까지 2,400여만 원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했다.

기부하는 마라토너로 알려진 김현우씨는 “2001년부터 마라톤 동호회원들과 함께 폴코스 완주를 하거나 미리 정해 놓은 시간 이내에 들어오면 기부를 하기로 약속하고 성금을 모았다”고 전했다. 은평골프장 천사 박병준씨는 “골프레슨비 중 1만 원을 저축하는 이웃돕기 통장을 만들어 기부하고 있다”며 “실적을 했던 2005년을 빼고 매년 기부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연순 사무총장 “감동적인 이야기 들으니 가슴 벅차”

장애인용 구두를 만들어온 구두장인 남궁정부씨의 사연도 소개됐다. 그는 “12세 때부터 구두 만드는 일을 했다. 내가 팔이 하나 없다 보니 장애인을 위한 구두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지금까지 5만 켤레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매달 10만 원씩 기부하는 착한가게에 가입하기도 했다. 환경미화원 신용선-안연숙 부부는 월급의 20%인 50만 원이

상을 매달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고 있다. 철도의인 김창량 할아버지는 평생을 근검절약하며 살았다.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기부할 정도로 나눔에 열정적이다. 그는 “1988년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려다 열차에 치여 크게 다친 뒤, 많은 분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다”며 “그 때부터 기부를 시작해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있다”고 했다. 김창량 할아버지는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하며 또 한 번의 토크기부를 약속하기도 했다.

김연순 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은 “말을 잇기 어려울 정도로 감동적인 나눔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벅차다”며 “누구에게나 나눔 것이 있다”는 말을 아름답게 실천해 주신 기부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나눔 토크콘서트의 감동을 전했다.

이어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 다문화어린이합창단인 라온제나 합창단의 공연이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모든 참석자가 테이블에 놓인 나눔의 등불을 밝히는 퍼포먼스를 하며 행복주주총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마무리됐다. ❀

특집_독립유공자 유족 돕기

글 한상현 사진 서티스톡, 공동모금회 및 각 기관

조국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강제 침략한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이다. 7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과거의 아픈 역사는 치유되지 않았다.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시절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살펴본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고 가르쳤다. 영국의 수상 처칠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역사의 뒀안길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이들은 우리의 가슴에 새겨 영원히 기억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일제의 수탈에 저항하고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며 정신을 계승하려는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은 점점 탄력을 잃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가는 독립운동가들을 잊지 않고 그 후손들을 기억하며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타국에서 갖은 수모와 차별을 견뎌내며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 성금을 보내온 재일제주인들도 공동모금회는 잊지 않았다.

독립유공자 유족 생계비 지원

상당수 후손 도움 못 받고 생활고
모금회, KEB하나은행과 함께 사업

우리나라에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애국지사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 1만 4,830명이다. 이 중 5,535명이 가족에게 전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이들은 9,000여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만여 명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KEB하나은행과 공동모금회는 독립유공자유족회를 통해 이들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홍주현 독립유공자유족회 국장은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상대적으로 소외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지원해 선조에 대한 자긍심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저소득 독립유공자 후손 50명에게 매달 25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 대상자 중에는 최진동 장군의 후손도 포함되어 있다. 항일 무장 독립투쟁의 역사 가운데 가장 눈부신 전과를 낸 것이 청산리와 봉오동전투다. 김좌진 장군과 함께 이 전투를 이끌었던 최진동 장군의 공적은 국내에 그리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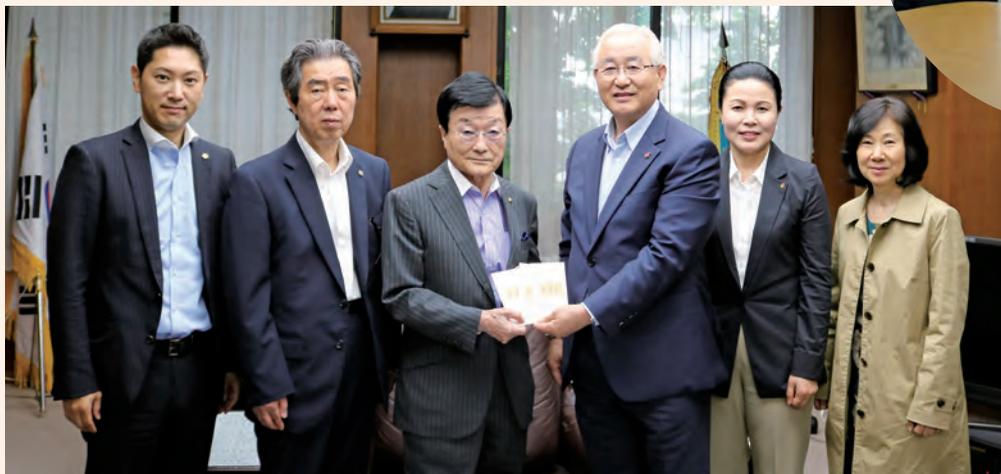
러지지 않았다. 광복 후 중국에 남았기 때문이다. 최 장군의 후손들은 중국 정부의 차별 속에서 살다가 2010년 한국으로 이주하게 됐다. 그러나 식당과 공사장 등에서 일을 하며 어렵게 살고 있었다. 최 장군의 친손자인 최창립(83)씨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고 거동조차 불가능하며 친손녀인 최정선(77)씨는 신장암 투병 중으로 지원이 절실했다. 친손녀 최금자(74)씨와 외손녀 조숙영(75)씨도 일을 할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하다. 1년간 한시적이지만 이번 생계비 지원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외에도 지난 7월 17일 독립유공자 후손 중 대학생 10명을 선발해 장학금 250만 원씩을 지급했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게 된 독립운동가 채규호 선생의 증손자 이충호(20·한국해양대)군은 “잘 알지 못했던 할아버지로 인해 장학금을 받게 된 만큼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봉사와 나눔의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독립유공자유족회는 오는 10월 유족 중 40명을 선발해 2박 3일간 근현대사의 아픔이 시작된 강화도로 사적지 탐방을 다녀올 예정이다.

재일제주인 1세대 지원 사업

강점기 때 일본에서 번 돈 고향으로 보내
도민들 나서 힘든 노년 보내는 이들에 온정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역사 중 하나가 재일제주인이다. 일본강점기 때 수탈 정책으로 땅을 잃고 생활 기반을 상실한 농민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정착해 살았다. 조선인이라는 멸시와 차별 속에서도 자신이 고생해 번 돈을 고향인 제주에 보내 제주 경제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들은 1960년대 ‘감귤나무 보내기 운동’을 실시해 제주 경제 안정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전기·수도 설치, 도로건설을 위해 수백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 지역발전의 밑거름이자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고향을 위해 헌신한 재일제주인들이 이제 고령으로 생활 능력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공동모금회는 ‘제주공생’을 통해 재일제주인 1세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경근 제주공생 사무국장은 “제주의 위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재일제주도민 1세대가 이제 고령화로 생계와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힘든 노년을 보내고



연기자 박재민씨, 독립유공자 후손 위해 성금 쾌척 “이름도 없이 독립운동했던 분들 기억해야죠”

지난 6월 11일, 박재민씨는 루게릭 환우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기탁하며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 원 기부를 계획했다. 이보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9월 일제강점기의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를 돕기 위한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나눔리더'가 되기도 했다.

그가 독립유공자에 관심을 갖고 일제강점기 때 상처받은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기부



활동을 하는 이유를 묻자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에게 큰 빛을 쬐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하고 싶었다”며 “독립 이후 친일파라면 지금도 청산해야 할 적폐로 간주하지만 독립운동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름도 없이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사라진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견을 밝혔다.

대중의 사랑 받는 공인의 사회적 책임감 기부로 이어갈 것

박재민씨도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 증조부께서 안중근 의사의 옆집에 사셨는데 독립자금을 지원하던 분이었다고 한다. 그는 “우리가 이렇게 잘살고 있는 것은 가족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용기 있는 분들 덕분”이라며 “후대에서도 그들의 뜻을 본받아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박재민씨는 지난 6월 루게릭 환자를 위해 써달라며 성금 200만 원을 공동모금회에 전달한 것에 대해 “지난 해에도 아이스버킷 챌린지 지목을 받아 얼음물을 뒤집어썼는데 올해 또 지목됐다”며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인 만큼 올해는 직접 기부를 통해 루게릭 환자들을 돕고 싶어서 기부를 했다”고 말했다. 2004년에는 세월호 피해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기부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 박씨는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공인으로서 사회적인 책임감도 없지 않지만 나의 나눔이 누군가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라고 말했다.

“제가 가지고 있는 10개 중 1개를 나눈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1개가 10개 이상의 행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받는 분이 행복해진다면 저도 행복할 겁니다. 금액을 떠나 제가 수입이 있는 한 기부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요.”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의 나눔에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공생은 위로금 전달을 위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일본 도쿄와 오사카 지역을 방문했다. 아주 어릴 적 부모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고순자(79·가명) 할머니는 지금은 오사카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다. 이번 제일제주인 1세대 지원 사업을 통해 위로금을 전달받으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고순자 할머니는 “풍치가 있어도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했는데 고향 사람들이 찾아와 도와주는 덕분에 풍치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제일제주인 1세대 대부분이 고령이다 보니 위로금을 전달받은 후 사망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18세 때 아버지와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김정순(101·가명) 할머니는 위로금을 전달받을 때 눈조차 뜰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제주’라는 단어에 눈을 깜빡였다. 고향 사람들의 방문에 반응하던 할머니는 지난 6월 세상을 떠났다.

당초 100명의 어르신께 5만 엔씩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신청 어르신들 전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4만 엔씩 124명의 어르신께 위로금을 전달했다.

고려인마을문화회관 건립 위한 모금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카레이스키들
광주에 4,000명 귀향... 편안한 정착 도와

러시아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독립국가연합에 살고 있는 한국인 교포. 일제강점기 때 강제 이주돼 지금까지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다. 현지 사람들은 이들을 ‘카레이스키’라고 부른다. 구 소련 시절 연해주에 살던 농민과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화물열차에 짐짝처럼 실려 중앙아시아의 황무지로 강제 이주됐다. 이들은 강한 생존력으로 살아남았지만 1992년 1월 소련이 붕괴되면서 설 자리를 잃게 되자 조상의 땅인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이들이 마음 편히 정착할 곳은 많지 않았다. 몇몇 지자체가 이들의 정착을 돕고 있지만 러시아어를 하는 이들에게 한국은 낯설기만 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교육, 의료서비스, 취업까지 지원이 가능한 곳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을 중심으로 조성된 고려인마을

이다. 이곳엔 약 4,000여 명의 고려인이 정착해서 살고 있다. 사단법인 고려인마을의 이천영 대표는 “고려인 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나 법적으로 지원 근거가 없어 모금을 통한 민간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광주 공동모금회는 올해 2월 고려인마을과 마을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연합모금을 진행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광주 공동모금회는 지난 2014년 고려인마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연합모금을 진행해 1억 2,500만 원을 모금한 경험이 있다. 1년간 고려인마을에서 운영 하는 라디오 방송국 고려FM과 나눔방송, 한국협동조합방송 등을 통해 모금활동을 전개한다. 6월까지 모금된 금액은 2,150만 원. 목표로 하는 1억 5,000만 원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 고려인마을에는 매월 400여 명의 고려인이 찾아온다. 그러나 의료서비스나 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천영 대표는 “국가적인 경기침체 등 어려움으로 기부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데 독립운동 후손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부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4년째 후손 대학생 선발해 2억여 원 장학금
 텀블러 수익금, 국외소재문화재단에 기부도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광복절 73주년을 기념해 공동모금회와 함께 광복회가 추천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우수 대학생 50명에게 장학금 1억 원을 전달한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전국 매장에 공동모금회 모금함을 비치해 모금된 성금과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자체 기부금을 더해 매년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지원하고 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지난 2015년 광복 70주년과 개점 16주년을 기념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다. 첫째 대학생 16명에 3,200만 원을 지원했고, 개점 17주년인 2016년은 17명에 3,400만 원을 전달했다. 또 지난해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대학생 50명에게 총 1억 원의 장학금을 전했다. 이렇게 3년간 83명의 대학생에게 총 1억 6,600만 원을 지원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관계자는 “광복절은 국권 회복의 기쁨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의 정신을 기리는 날”이라며 “선조들의 정신이 후대에도 이어져 후손들이 미래 대한민국을 밝혀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장학금 지급 취지를 설명했다.

이 밖에도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3월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김영조 낙화장의 주미대한제국공서관 헌정작품을 디자인에 반영한 텀블러를 출시, 지난해 광복절을 기념해 출시된 두번째 주미대한제국공서관 텀블러의 판매수익금에 이번 주미대한제국공서관 낙화(烙畵) 텀블러 예상수익금을 더한 1억 원을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단에 기부하기도 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관계자는 “장학금을 지원받은 청년들이 독립유공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미래 대한민국을 밝혀나가는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전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2015년부터 독립유공자 자손 우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광복회에서 추천받은 독립유공자 후손 50명에게 1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뒤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포커스

글 한상헌 사진 청와대, 연합뉴스



김정숙 여사, 사랑의열매 기부자 청와대 초대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는 지난 7월 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한 감동적인 기부미담 사례의 주인공 10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어 이웃사랑 실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남궁정부씨 등 감동적인 기부미담 사례자들

김정숙 여사 초청 청와대 오찬간담회에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아온 특별하고 감동적인 기부미담 사례자들이 참석했다. 각종 경진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기부한 초등학생 강나연(10) 양, 사고로 오른팔을 잃었어도 장애인용 특수 구두를 제작하며 장애인을 위한 기부활동에 앞장서 온 남궁정부(77)씨, 이웃을 돕고자 소방관이 된 후 기부활동에도 앞장서 온 안재남(49)·이영희(51) 소방관 부부, 경비원으로 10년 동안 월급을 꼬박꼬박 기부해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한 김방락(71)씨, 정기적인 기부를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와 온 환경미화원 신용선(56)·시설관리공단 직원 안연숙(60)씨 부부, 택시 내에 사랑의열매 모금함을 비치해 성금을 기부해 온 택시기사 김경자(61)씨 등이 자리했다. 또한 다양한 기부활동으로 아이돌 가수 최초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하고 사랑의열매 광고에도 재능 기부로 출연한 바 있는 ‘소녀시대’ 임윤아(28)씨도 함께했다. 오찬에 앞서 마련된 사전 다과 자리에서는 이날 참석한 기부자 김은숙(79)씨가 운영하는 삼청동의 가게에서 가져온 단팥



1 김정숙 여사가 초등학교 기부자인 강나연 양에게 추대패와 사랑의열매를 전달받고 있다. 2 청와대 오찬장에서 예종석 공동모금회 회장이 인사말을 건네고 있다. 3 아이들 기부자인 소녀시대 임윤아씨가 김정숙 여사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4 김정숙 여사와 예종석 공동모금회 회장(왼쪽)이 나란히 오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죽과 수정과, 식혜가 제공되었다. 김은숙씨는 신경장애를 가진 딸에 대한 미안함과 사회에 대한 고마움으로 역시 오랜 시간 꾸준한 기부를 해오며 나눔을 실천해 왔다.

김 여사에게 사랑의열매 명예회장 추대패 전달도

자리를 옮겨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정숙 여사는 “기부는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곧 기부”라며 “어려운 이들에게 위로와 주고 실천해 온 여러분이야말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정숙 여사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패를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초등학교 기부자인 강나연 양이 직접 김정숙 여사에게 추대패를 전달했다. 이어 오찬과 함께 자유로운 환담이 오갔다.

김방락씨는 “어렸을 때부터 지독한 가난을 겪어서인지 장성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결심했었다. 지금도 그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남궁정부씨는 “장애를 겪고 나서야 그들의 고통을 알게 됐다”며 “나눔은 어려운 게 아니라 차 한 잔 마실 여유만 있어도 마음만 있으면 가능한 게 기부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녀시대 윤아 “더욱 더 선행하는 모습 보이고 싶어”

소녀시대 임윤아씨는 “나눔이라는 공통점 하나로 새로운 인연이 생긴 것 같아 참 따뜻한 하루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직업상 저의 언행은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되니 더욱 더 선행하는 모습을 많이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여사는 “마음으로 많이 느끼고 배웠다. 각자 자신이 정한 목표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어려움도 따른다. 하지만 차한 잔 덜 마시고 돕는다면 그 말씀처럼 그런 작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든다. 여러분의 선행과 베푸는 마음, 많이 배우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의 말을 남겼다. ❀



아침에 이불 맡기면 오후엔 뽕뽕 어르신들 이불 빨래 끝~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에는 아주 특별한 빨래방이 있다. 이불같이 집에서 하기 어려운 대형 빨래를 세탁부터 건조까지 해준다. 그런데 돈은 받지 않는다. 사랑을 듬뿍 담은 감사의 마음만 받는다. 지난 6월 문을 연 행복 나눔 빨래방을 찾아갔다.



세종시 소정면에 행복 나눔 빨래방 인기

세종특별자치시에 무료로 이불을 세탁해 주는 빨래방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이불을 세탁해 주는 빨래방은 전국에서 이곳이 유일하다고 한다. 지난 6월 19일 소정면주민자치센터 내에 문을 연 행복 나눔 빨래방은 소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이불 빨래를 해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KCC가 그간 세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성금 중 5,000만 원을 지원받아 35kg 용량의 대형세탁기와 50kg 대형건조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빨래방 설치 아이디어를 낸 김한식 소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소정면 인구 3,000여 명의 평균 연령이 70세일 정도로 노인이 많은 곳이라 이불 빨래에 어려움이 있다”며 “어르신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빨래방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1 민경희 소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이 세탁이 끝난 이불 빨래를 세탁기에서 꺼내고 있다.
2 오순영 세종재가노인복지센터 홀어르신 생활관리사가 세탁이 끝난 이불을 전달하고 있다.



김한식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마음속 찌든 때까지 씻어 드리는 심정으로”

대기업 회장님 포스가 물씬 풍기는 김한식 소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지역 내 마당밭이다. 제일 먼저 착한가정에 가입해 주변 지인들에게 가입을 권할 정도로 나눔에 적극적이다. 뿐만 아니라 착한일터 발굴과 착한가게 가입을 유도하며 지역의 풀뿌리 모금사업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빨래방을 계속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다. 김한식 위원장은 “빨래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관리비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러나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을 위해 마음속 찌든 때까지 씻어 주는 행복 나눔 빨래방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래 소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이불 빨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지역 내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세탁기와 건조기를 마련해 어르신들의 이불을 세탁해 왔지만 어려움이 있었다. 가정용 세탁기 중 가장 큰 용량인 19kg을 썼지만 이불 두 채를 넣고 돌리기가 버거웠다. 15kg 용량의 건조기는 이불을 넣고 말리기 쉽지 않았다. 장마철과 한겨울에는 이마저도 할 수 없었다. 또 이불은 매일 덥고 자야 하는데 수거부터 전달까지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이불 6채 돌리는 데 세탁 40분, 건조 40분이면 끝이다. 세탁기의 수압이 높아 짜든 때도 잘 빠진다. 건조기 용량이 커 섬유 먼지까지 말끔하게 제거된다. 아침에 맡기면 오후에 뽀송뽀송한 이불을 받을 수 있다. 민경희 소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이불 세탁보다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한 것”이라며 “빨래방을 통해 이불을 세탁한 어르신들이 다시 맡길 정도로 좋아하신다”고 했다.

자원 생활관리사들이 수거에서 전달까지

빨래방을 운영한 지 한 달이 되어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화되고 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이불을 지역 담당 홀어르신 생활관리사가 수거해 오면 민경희 사무국장이 세탁과 건조를 해 봉투에 잘 담아 놓는다. 그러면 오후에 생활관리사가 이불을 전달한다. 빨래방 운영의 핵심 인력들이다.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고 자원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 이불을 수거해 오는 세종재가노인복지센터 오순영 홀어르신 생활관리사는 “허리가 굽은 어르신들이 무거운 이불 빨래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깨끗해진 이불을 받고 좋아하시는 어르신을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오전에 세탁을 마친 이불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한다는 오순영 생활관리사를 따라 나섰다. 소정면 소정리에 사는 이영희(79) 할머니는 겨우내 덥고 자던 이불과 요를 행복 나눔 빨래방에 맡겼다. 벌써 두 번째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불을 받은 이영희 할머니는 “아침에 가지고 가더니 벌써 가지고 왔느냐”면서 “자식보다 더 자식같이 챙겨주고 이불까지 깨끗하게 빨아줘서 정말 감사하다”며 오순영 생활복지사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지역 어르신 집 도배와 장판 설치 사업도 준비

현재 소정면 행복 나눔 빨래방은 홀어르신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라도 빨래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김한식 위원장은 마을이장협의회를 통해 소정면 11개 마을이 요일별로 순번을 정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 냈다. 김 위원장은 “모두 부모 같은 분들인데 누구는 이불을 세탁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되겠는가”라며 “마을 회관에 이불을 수거해 놓으면 가져다가 세탁해 다시 갖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했다.

소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빨래방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다시 지역 어르신 집의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소정면에 있는 KCC 세종공장에서 장판을 지원받았고 세종 공동모금회를 통해 벽지를 공급받아 재료 준비는 완료됐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바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렇게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서 봉사하는 이들이 있기에 세종시가 행복특별시로 불리는 것 같다. ❀

착한기업_포스코

글 박미진 사진 포스코, 한국해비타트, 카페오아시아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posco

더 나은 사회를 향하여 강철보다 단단한 이웃사랑

국가의 발전에 대한 기여를 사명으로 끊임없는 혁신과 식지 않는 열정으로 '불가능'의 영역을 개척해 온 포스코. 우리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온 기술로 국내외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나눔을 선보이고 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강철로 단단하게 빛어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나보자.



봉사와 나눔의 즐거움 가득한 포스코

대한민국 철강 산업을 대표하는 포스코는 1968년 국영기업으로 설립된 포항종합제철로 시작해 짧은 시간 내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철강사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낸 그룹이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포스코는 첨단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철강을 비롯해 미래 삶의 소재가 될 인프라와 신성장 사업을 통해 글로벌 100년 기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사회 발전과 생활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온 포스코는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Society With POSCO'라는 목표를 갖고 사회공헌을 펼치고 있다. 그룹 사업특성 및 사업장 소재지와 연계한 공헌, 임직원의 봉사활동

참여와 급여 1%의 나눔, 그리고 비영리 공익단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 강화라는 3가지 전략으로 나눔의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사회공헌에서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인 SDGs와 매칭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SDGs 11), 양질의 교육기회(SDGs 4), 경제적 자립지원(SDGs 8)으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 중이다.

임직원들의 자원봉사 참여도 활발하다. 2017년 기준 총 누적 530,994시간으로 1인당 연평균 32시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포항·광양 지역의 '1부서 1자매마을' 결연 현황은 203개에 달한다. 임직원들에게는 봉사과 나눔의 즐거움을, 이웃에게는 오늘의 행복과 내일의 꿈을 선사하는 포스코의 사회공헌을 소개한다.



포스코 스틸빌리지 프로젝트

노인보호쉼터·키즈카페·공유주택
UN SDGs 이행 우수사례로 선정

2017년 11월 포스코 1%나눔재단이 진행하는 포스코 스틸빌리지 프로젝트에 관해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UN SDGs 이행에 기여해 UN 홈페이지에 우수사례로 인증·등재된 것이다. SDGs는 인류 발전과 지구 환경, 보편적 사회,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UN 주도로 전 세계 193개국이 참여, 노력하

는 국제사회 최대의 공동 목표를 말한다. 포스코그룹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한 스틸공법으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철로 희망을 지었던 포스코 스틸빌리지 프로젝트의 성과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포스코그룹과 외주 파트너사 임직원들의 급여 1% 기부로 운영되는 포스코 1%나눔재단이 진행하는 포스코 스틸빌리지 프로젝트는 2014년에 시작되었다. 국내에서는 포항 노인보호쉼터(2013)나 광양 시청각장애인복지관(2014), 서울 청소년쉼터(2015)같이 배려계층을 위한 복지시설을 통해 사람들에게 따뜻한 철의 힘을 전하고 있다. 지난해 준공된 인천 동구랑스틸랜드는 배려계층 아동을 위한 놀이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키즈카페다. 포스코그룹의 파형강판, 고망간바닥재, 스틸커튼월 기술을 적용하고, 포스코휴먼스가 시공사로 참여해 특별한 공간을 완성했다. 주거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공유주택도 있다. 지난 7월 준공된 스틸시설 제5호 서대문구 세어하우스가 그 예다. 녹이 잘 슬지 않는 포스맥을 적용하고 첨단 단열 공법을 통해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시킨 패시브하우스로 청년들의 든든한 보금자리로 사랑받고 있다.

베트남에도 스틸빌리지 제공... 미안마에는 스틸브리지도

해외에서도 스틸빌리지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포스코그룹과 임직원 역량 총집합의 산물로 손꼽히는 베트남 스틸빌리지(Steel Village) 프로젝트다. 2014년 POSCO-Vietnam과 SS VINA가 위치한 바리아 붕타우성 편호아 지역의 집 없는 빈민들을 위해 삶의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지방정부의 부지 제공과 포스코 1%나눔재단의 건축비 지원 그리고 국내외 포스코그룹 임직원과 포스코대학생봉사단 비온드가 건축봉사자로 힘을 보탰다. 그 결과 지난해 104채 준공으로 베트남 스틸빌리지를 완공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미안마 최대도시 양곤에서 북서쪽 70km 거리에 위치한 여와마을에서는 스틸브리지가 마을 사람들의 생계유지와 아이 교육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잦은 침수로 인해 성한 곳이 없던 낡은 나무다리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포스코대우와 미안마포스코는 기후와 지형 그리고 주민들의 이야기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해 이를 바탕으로 포스코A&C가 우기에 물이 불어도 범람하지 않는 아치형 다리를 설계했다. 다리 골조와 가드레일은 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한 후판과 포스맥으로 제작하고, 시공감독은 포스코건설이 맡았다. 그렇게 탄생한 내구성과 안전성이 높아진 철교는 2톤이 넘는 농기계도 거뜬하게 지나갈 수 있어 마을과 세상을 잇는 드림브리지라 되고 있다.

해외 스틸빌리지 사업은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빈민마을의 주택, 학교 개보수와 식수위생 인프라를 구축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태국에서는 야외 체육시설인 스틸돔을 건립해 아이들이 일사량과 강우량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껏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돕고 있다.



미래세대 자립지원

예체능, 제빵·조리, 컴퓨터, 학업 등
다문화·북한이탈·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전국꿈나무축구대회 최우수선수상(MVP) 수상, 비비M음악콩쿠르 고등부 1위, 유학시험 모의고사 전국 수석, 싱글앨범 발매, 각종 자격증 취득. 다문화·북한이탈·저소득층 청소년이 이뤄낸 아름다운 결실에는 아이들의 진한 땀방울과 함께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포스코 임직원들의 1%의 정성이 담겨 있다.

올해로 시행 5년째를 맞는 친친무지개 프로젝트는 다문화·북한이탈·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맞춤형 진로 사업이다. 포스코 1%나눔재단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와 함께

지역 소재 사회복지기관의 추천을 받아 매년 65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1년 동안 매월 30만 원의 진로 개발 장학금 지원과 사례관리자의 1:1 멘토링을 통해 집중적으로 진로를 지도한다. 진로 분야는 예체능, 제빵·조리, 컴퓨터, 학업 등이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섬유미술·패션디자인을 비롯해 IT, 서양화, 통번역커뮤니케이션, 환경공학, 호텔조리 등이 추가되어 좀 더 다양한 분야의 꿈을 그릴 수 있게 됐다. 연간 프로그램은 진로지원 외에도 기관방문, 우수사례발표, 장학동창회, 정기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꿈의 폭을 넓혀간다. 열심히 노력한 장학생은 이듬해까지 연속지원을 받게 된다.

보육원 퇴소 청소년들을 위한 두드림 프로젝트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제 성격에 맞는 진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진로를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었어요. 또 대학생활에 대해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올해 두드림 프로젝트에 뽑힌 38명의 학생이 1박 2일간 진행된 두드림 진로캠프에 참여한 후기에는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첫발을 디딘 아이들의 작은 희망이 엿보였다.

두드림 프로젝트는 보육원 퇴소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지원 프로젝트다. 만 18세가 되어 시설을 떠나야 하는 청소년의 수는 매년 1,000명 이상. 사회적 기반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로 막막하게 사회로 내몰리는 아이들은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버거운 현실의 벽 앞에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두드림 프로젝트는 이러한 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들이 꿈과 진로를 고민하고 준비할 기회를 주기 위해 시작되었다. 직업훈련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개인이 원하는 전문기술을 익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포스코 1%나눔재단은 지난해 포항 지역에서 두드림 프로젝트를 시범운영 후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아동자립지원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동 40명의 진로개발·직업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포스코 스틸하우스

저소득층·화재피해 가정에 사랑의 보금자리
포스코 철강기술 활용한 건축자재 활용

지난 1월 18일 진천에서 올해의 첫 번째 포스코 스틸하우스 준공식이 열렸다. 노후로 천장 누수와 낮은 위치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는 노후 주택에 사는 불우이웃을 위한 튼튼한 스틸하우스라는 새 집 선물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오랫동안 불안과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야 했던 수혜지는 “주위의

지원과 따뜻한 사랑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4월 거창에서는 남편을 잃고, 아들도 쓰러져 어려운 중에 주택 화재로 위기를 맞은 가정이, 6월 정선에서는 노모와 함께 노후 주택에서 생활하다 퇴거 위기에 놓인 장애인 가정이 스틸하우스라는 새 집을 선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18년 창립 50주년 기념... 스틸하우스 50호 돌파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 나눔의 릴레이가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강추위가 매서웠던 지난 1월 진천과 충주를 시작으로 2월 광주·화순, 3월 안동·고성(강원), 4월 예천·거창, 5월 포항·단양·영동(충북)에 스틸하우스가 지어졌다. 6월 포천·서귀포·정선으로 온정이 이어졌으며, 7월에 장흥·남원·순창·포항 북구와 남구까지 올해 총 19채의 집을 공급했다. 그리고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구슬땀을 흘린 결과 행복과 희망으로 가득 찬 포스코 스틸하우스 50호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포스코 스틸하우스는 포스코가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가 주관하는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사업이다. 저소득층 이웃 중에서 화재로 피해를 입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화재나 붕괴, 누수와 누전 등의 위험요소가 많은 집에 사는 저소득층을 위해 45m² 내외의 집 1채를 지원한다.

스틸하우스는 포스코의 철강기술을 바탕으로 한 포스맥이란 자재를 활용해 건식 건축방법으로 지어진다. 건축 기간은 짧지만 내진설계로 안전하고 튼튼하며, 무엇보다 화재에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집이다.

포스코는 2009년부터 시작해 2018년 7월까지 전국 50가구에 스틸하우스를 지원했다. 기존에는 화재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나 2016년부터는 저소득가정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화재피해 27가구, 저소득가정 22가구, 지진피해시설 1곳에 스틸하우스가 지원됐다.

각종 위험요소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심리·정서적 위축과 우울함을 겪던 이웃들. 이들에게 해피스틸하우스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이자 가족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되어 주고 있다.

대학생봉사단 비온드

연간 100명의 나눔인재 양성

국내외에서 1년여간 봉사

“남을 밝고서라도 잘난 사람이 되고 싶었던 제가 비온드(Beyond) 활동을 통해 혼자만 잘사는 세상이 아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의 삶, 듣지 못했던 그들의 이야기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누구보다 뜨거운 나눔에 대한 열정으로 지난 한 해를 보낸 대학생봉사단 비온드 11기 이재혁 군의 고백이다. 그동안 비온드로 활동한 다른 학생들의 소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며 자신만을 향해 있던 관심이 이제는 주변과 사회를 돌아볼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바뀌었다.

2007년에 창단한 포스코 대학생 봉사단 Beyond는 포스코 그룹의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으로 한국해비타트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역과 나이, 전공과 성별을 불문한 100명의 젊은 청년이 1년여간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우정을 쌓고 봉사정신을 배우는 봉사단이다.

국내에서는 화재피해를 입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이웃을 위해 스틸하우스 건축봉사, 비온드 단원이 직접 기획하고 실천하는 재능봉사 등을 펼친다. 또한 해외에서는 ‘포스코 스틸빌리지’



현장을 방문해 주거빈민을 위한 집짓기 봉사와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봉사 등을 전개한다. 그동안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매년 10여 채의 집을 지었다. 활동기간 동안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 우정을 쌓으며 사회를 이해하는 포용력을 키우게 된다.

올해 새로 뽑힌 12기 비온드 대학생 봉사단은 7월 4일 발대식을 가진 뒤 11~19일까지 국내 건축공사 스틸하우스를 진행했다. 이후 8~10월에는 조별/팀별 봉사, 11월 국내재능봉사, 내년 1월에는 인도네시아로 가 10박 12일 동안 해외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고용카페 지원 사업

다문화여성들 자립 돕는 바리스타 만들기
이주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2015년 기준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수는 30만여 명, 2020년에는 약 100만 명으로 증가한다고 한다. 결혼으로 한국 땅에 정착한 이주여성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셈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선택이지만 실제 이들의 사회 적응은

녹록지 않다. 특히 경제적 자립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란 힘든 상황이다. 이에 포스코는 2013년부터 다문화여성들의 한국 사회의 온전한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카페오아시아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취약계층 고용카페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1년 동안 진행된 지원사업에 쏟린 관심은 상당했다. 전국의 이주여성과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1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이를 훌쩍 초과한 34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업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바리스타 교실은 커피에 대한 기본 교육부터 라테아트까지 바리스타로서 알아야 할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 창업으로도 확대

현재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여러 국가 출신의 이주여성들이 일하는 카페오아시아 조합을 위한 교육도 진행됐다. 라테아트나 샌드위치 메뉴와 같은 카페 업무부터 직원 동기 부여와 코칭스킬, 고객 만족,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분석까지 카페 업무의 관리자로서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 트렌드에 맞는 음료와 사이드 메뉴 개발이나 메뉴 출시에 따른 홍보용 POP 제작 등 카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취약계층 고용카페 지원 사업'의 결실도 알차다. 2013년부터 조합카페는 10개소에서 2017년 31개소로 증가했으며, 이주여성들과 같은 취약계층 일자리 또한 28개에서 104개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CGV 사내 카페 창업도 이뤄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조합원 카페친구의 바리스타였던 취약계층(결혼이민자)인 순안 씨와 직영점 카페오아시아 점장이었던 다문화결혼이주여성인 반말리 씨는 각각 카페오아시아 신월점과 동부여성발전센터점을 창업했다. 포스코를 통해 받았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내밀고 있다.☘

주민과 청소년이 손잡고 '내가그린(Green)마을'

청소년은 학교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학교 주변 유해환경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학교 등갓길 상습 흡연이 이루어지던 좁고 어두운 골목을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밝고 깨끗한 환경으로 바꾸고, 이곳에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었다.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이 탄생한 것이다.

파주 법원6리 공공미술프리즘 사업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은 미군 주둔 영향으로 일명 용주골로 불리던 집창촌이 있던 곳이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후 사라졌지만, 오랜 기간 미친 영향으로 지역 슬럼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 경제 활동 정체와 함께 문화적으로도 점점 소외되어 갔다.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주변 환경이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삼성전자가 후원하는 '나눔과꿈' 사업을 통해 법원읍의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미술프리즘의 '내가그린(Green)마을'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공공미술프리즘은 청소년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를 찾아갔다. 특히 도로를 사이에 두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있는 법원6리를 주목했다. 그리고 주민들을 설득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함께할 것을 제안했다. 홍성희(72) 법원6리 이장은 "공공미술프리즘에서 처음 왔을 때 사실 믿음이 가질 않았다.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보겠다고 하는데 이걸 믿어도 될까 싶었다"고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그러나 진정성 있는 공공미술프리즘의 설득에 마음을 연 홍 이장은 함께 주민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벽화를 그리고 화단을 가꾸는 등 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땐 주민 동의가 필수다. 홍 이장과 공공미술프리즘은 1년 동안 끈질긴 노력 끝에 주민 모두에게 동의를 받는 데 성공했다. 홍 이장은 "법원6리는 시간이 멈춰버린 듯 변화가 없던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사람들 표정도 밝아지고 활기가 넘친다"고 자랑했다.

깔끔해진 동네... 주민·학생들 서로 "고맙다"

공공미술프리즘은 이와 동시에 울곡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마을을 분석하고 골목골목 청소년 유해환경을 찾아 어떻게 꾸밀 것인지 머리를 맞댔다. 회색뿐이던 통학로를 파스텔 톤으로 바꾸고, 상습 흡연 구역에는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 화분에 그림을 그리고 생수병을 매단 담장 화단 아이디어도 냈다. 그리고 청소년이 공부도 하고 놀이도 즐길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마련해 리모델링 설계도를 함께 그렸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주민들과 학생들은 붓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지역에 거주하는 아프리카 노동자들도 거리 청소에 합류했다. 2학년 때부터 내가그린마을 프로젝트에 참여한 노이령(18) 울곡고등학교 공공미술 동아리 회장은 “마을 구석 구석을 분석하고 직접 벽화를 그리면서 동네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뿌듯했다”며 “밝아진 마을을 보고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할 때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청소년 센터에선 도예, 만화, 공예 강좌도 열려

청소년 센터인 그린큐브도 마련되고 벽화 그리기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지만 이곳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다. 먼저 지역 내 거주하는 재능기부자를 찾아 다양한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업사이클링을 가르치는 연윤희(41) 강사는 “법원리가 살아나려면 환경 개선뿐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도 중요하다”며 “지역에 재능 있는 분들을 모아 매주 목요일 재능기부 문화 프로그램 강좌를 열고 있다”고 했다. 현재 이곳엔 도예, 만화, 업사이클공예, 토털공예 강좌가 열리고 평소엔 공부방으로 활용된다.

그린큐브를 중심으로 5일장이 열리던 곳에서 매달 프리마켓을 열어 사람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었다. 수익금은 어린이 돕기 후원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또한 어르신들로 구성된 마을 방법대를 조직해 청소년 일탈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마을에 생기가 넘치니 아이부터 어른까지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



“청소년과 주민 만나는 문화공간 되길” 김예슬 공공미술프리즘 매니저

“법원6리는 주로 딱딱한 회색이 많은 마을이었어요. 집들도 회색벽돌집이었지만 주로 어르신들이 살아서 머리색도 회색이었죠.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주민 설득이 가장 어려웠어요. 시선도 차가웠죠. 법원6리 이장님과 매일같이 주민 만나러 다녔습니다. 물론 반대도 있었죠. 벽화를 마쳤는데 원상복구 해놓으라는 분도 계셨어요. 물론 깨끗하게 복구했어요. 그렇지만 많은 분이 도와주셔서 청소년 거점 공간인 ‘그린큐브’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이곳은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좋아요. 골목만 나가면 학교거든요. 생기가 없던 법원6리가 점점 활기가 넘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주변 마을 이상들도 부러워합니다. 이제 그린큐브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소통의 장이 만들어져서 사람 냄새 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착한일터_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

글 홍경기 사진 한준호



“우리는 매달 뿌듯하고 훈훈한 시간을 경험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 ‘행복나눔단’.
10년이 넘는 기간 행복나눔단은 한결같이 지역사회를 돌보고 이웃들과 함께하고 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낀다는 그들을 만났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경의로 149에 자리한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는 일산1·2지구,
중산지구, 탄현1·2지구,
풍동지구, 행신1·2지구,
화정지구, 관광문화단지,
능곡지구, 성사지구,
석사지구, 덕이지구, 대화지구,
국제전시장 등 인근 지역
190,000호(2017년 12월
기준)에 열을 공급하고 있다.

매달 봉사뿐 아니라 교육비, 급식비, 생활비 등 지원

나누면 배가 되는 것은 기쁨만은 아니다. 우리 주위에는 소외된 이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고자 하더라도 혼자여서, 기회가 없어서 망설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 행복나눔단이 왕성한 나눔과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것은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열어줬기 때문이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집단 에너지 사업을 통해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세상을 바꾸는 친환경 리더로서 오랜 기간 우리 가정과 회사 등에 들어오는 에너지를 책임져 왔다.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창의적 혁신 정신, 구성원 및 노사 간 소통과 협업 중시,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높은 가치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신뢰 확보, 국민 고객 지역사회와 상생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사업소별로 ‘행복나눔단’을 두고 공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지역 주민과 함께 공유한다.

고양사업소, 10년 넘게 이웃사랑에 4,000여만 원 사용

고양사업소 역시 10년이 넘는 기간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행복나눔단을 운영 중인데 지난해 이들이 나눔과 봉사활동으로 사용한 금액이 약 4,0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직원을 대표해 사랑의열매 취재진을 맞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노동조합 고양지부 김선호 지부장은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그늘진 곳에서 소외받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에게 우리가,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시작한 게 ‘행복나눔단’이다”면서 “제법 긴 시간 행복나눔단이 유지되고 있는데, 직원들이 십시일반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도움을 준 게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고양사업소 행복나눔단은 ▲지역사회 ‘나눔’(11, 12월) ▲봉사활동 ‘참여’(격월) ▲저소득층 ‘희망’(매월) ▲공동모금 ‘동참’(매월) ▲사회공헌 중점 과제 ‘사회적 가치 실현’(연중)을 활동 계획으로 삼고 사랑의열매를 포함해 천사의집, 흰돌종합사회복지관, 문촌7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봉사과 나눔을 실천한다.

직원들은 대청소, 일손 돕기, 머리 감기기, 김장 나누기, 연탄 나눔 등의 활동 봉사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35개소와 연계해 재능기부를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육비, 급식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김선호 지부장은 “피치 못할 집안일로 빠지는 몇 명을 제외하고 56명 직원 대부분이 봉사와 나눔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급여에서 자신이 정한 후원금을 내는 우리 직원은 매달 뿌듯하고 보람된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봉사를 하고 싶어도 혼자 어디를 찾아가고 하는 일은 솔직히 쉽지 않다. 그런데 회사에서 기회를 만들어주니 평소 관심이 있던 직원들 참여가 적극적이다. 다녀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곤해서 귀찮기도 하지만 막상 갔다 오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뿌듯함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좀 더 많은 이를 위해... 사랑의열매와 인연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가 사랑의열매와 연을 맺고 ‘착한일터’가 된 건 지난 6월이다. 직원들 참여가 늘고 기부금액이 증가하면서 고양사업소 행복나눔단은 보다 많은 소외 이웃을 찾아가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그 결과 사랑의열매를 찾게 됐다. 그리고 꾸준한 나눔활동을 인정받아 ‘착한일터’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김선호 지부장은 “우리 회사와 직원들은 지역 주민들 사랑이 있어야만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받은 큰 사랑을 돌려줘야 하는 건 일종의 우리 의무다. 좀 더 많은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뵈고 싶었다”면서 “아무래도 종일 회사에 있으니 우리가 찾는 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사랑의열매 문을 두드리게 됐고 지금은 모든 직원이 만족할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특히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행복나눔단’이 도움을 주고 싶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 ♡

착한가게가 있는 풍경_강원 삼척

글 사진 조혜원(여행작가)

보라! 동해와 기암절벽 오라! 한국의 나폴리로

삼척엔 한여름의 더위를 잊게 할 신나는 레포츠가 있다. 반짝이는 바다 위에서 투명한 카누를 타고, 바다 길을 레일바이크로 달리고, 시원한 숲의 공기 속에서 피톤치드를 마음껏 들이킬 수 있다. 계절에 풍덩 안겨 신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삼척의 여름은 무더위 걱정 없다.





장호해수욕장은 수심이 얇고 파도가 잔잔해 스노클링을 하기에 좋다. 투명카누를 타면 발아래로 바닷속이 훤히 들여다 보여 작은 물고기의 움직임까지 볼 수 있다.

투명한 바다... 등등 떠다니도 좋은 장호해변

장호항과 장호해수욕장이 있는 장호리는 아담한 바닷가 마을이지만 흰 모래사장과 투명한 바다, 기암괴석에 둘러싸인 멋진 풍경 덕에 한국의 나폴리라 불린다. 하지만 이곳은 나폴리와 비교할 수 없이 그 자체로 반짝반짝 빛난다. 장호항과 장호해변 옆 갯바위 구간은 기암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어 방파제 역할을 한다. 수심이 얇고 파도가 잔잔해 아이들이 놀기에 좋다. 게다가 수온도 다른 곳보다 높아 금상첨화다. 인근에 있는 규모가 큰 해수욕장보다 이 작은 어촌마을로 피서객이 모여드는 이유다. 그저 등등 떠 있기만 해도 좋을 바다에서 스노클링, 투명카누, 오리배도 탈 수 있다. 아무 준비 없이 장호해변을 찾아도 이 모든 수상 레포츠가 준비돼 있다. 투명카누는 타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눈이 즐겁다. 잔잔한 파도를 양탄자처럼 깔고 앉아 부드럽게 바다 위를 미끄러져 나아간다. 멀리서 보면 정말 사람이 바다 위에 앉아 있는 것 같다. 수영을 잘 못해도 구명조끼를 입고 스노클링 마스크를 쓰면 쉽게 스노클링을 할 수 있다. 바다에 엎드리듯 풀썩 물결에 몸을 맡기고 등등 떠다니면 된다. 작은 물고기 떼와 빛을 받아 반짝이는 바닷속 세상 구경은 하루종일 해도 지루하지 않다. 물놀이를 하다 싫증이 날 즈음이면 구름다리를 건너 전망대에 올라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햇살이 뜨거우면 다시 바다로 풍덩 빠지면

그만이다. 바로 곁에는 장호비치캠핑장도 있어 오토캠핑과 야영도 가능하다.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기본 해상케이블카

용화해변과 장호해변 사이로 올라가면 삼척 해상케이블카 장호역이 있다. 반달 같은 장호해수욕장과 장호항의 입구인 등대가 한 쪽의 그림처럼 발아래 펼쳐진다. 장호역에서 용화역까지 874m 구간을 바다 위를 날아 건널 수 있다. 같은 바다지만 하늘 위에서 보는 풍경은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 투명카누가 작은 장난감처럼 유유히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다. 케이블카에 탑승하면 어른도 아이도 창문에



삼척 장호역에서 용화역까지 바다 위로 날아가는 해상케이블카



1



2



3

- 1 휴가를 온 가족이 은수사가 있는 두타산의 숲길을 걷고 있다.
- 2 삼척 옹화역과 궁촌역 사이를 달리는 해양레일바이크. 자동 전기장치가 있어 오르막길도 힘들이지 않고 오를 수 있다.
- 3 신라 경덕왕 17년에 세워졌지만 불에 타 1976년 다시 지어진 천은사 대웅전
- 4 받은 사랑 지역 주민을 위해 기부로 돌려주고 있다는 힘력풍천장어 주인장 부부와 아들



4

얼굴을 바짝 붙이고 감탄사를 내뱉는다. 바닥도 유리로 돼 있어 정말 바다 위를 날아가는 듯한 기분이 든다. 선라이즈호와 선사인호가 사이 좋게 두 역을 오간다. 케이블카는 왕복, 편도로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 성수기엔 한 시간씩 대기를 해야 할 만큼 인기가 높다. 옹화역이 아래 쪽, 장호역이 언덕 위에 있어 옹화역이 비교적 덜 붐빈다. 편도로 이용한다면 옹화역에서 탑승해 장호역에서 내려 산책로를 따라 걸어 내려오는 것도 좋다.

두타산 자락에 있는 고즈넉한 사찰 **천은사**

삼척 두타산 자락에 위치한 천은사는 볼거리가 많거나 화려한 사찰은 아니다. 하지만 일주문을 지나는 순간 펼쳐지는 숲은 어느 거대한 불상보다 속세의 번뇌를 잊게 한다. 사찰로 향하는 길에 만나는 굽직한 느티나무가 웅장하게 줄지어 있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다. 푸른 숲의 바람은 여름의 더위를 잊게 한다.

신라 경덕왕 17년(738년)에 지어진 사찰이라는 타이틀과 숲의 모습만 보면 천년고찰에 이를 것 같지만 영월루 누각 밑을 지나 나타난 천은사는 어쩐지 현대의 냄새가 난다. 6·25전쟁 때 큰불이 나 완전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가 1976년 다시 제 모습을 찾았기 때문. 지난 천년의 온기는 잃었지만 앞으로의 천 년을 잘 보살피 후세에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고려 충렬왕 때 문신 이승휴가 머무르며 역사시 《제왕운기》를 저술한 것으로 유명한 용안당으로 가는 길목에는 사찰보다 오래되어 보이는 통방아 3개가 있다. 이미 오래전 제 역할을 끝내고 숲의 일부가 된 듯한 통방아는 천은사가 과거 조포사였음을 말해준다. 조포사란 국가제례에 쓰이는 두부를 말아 만드는 절을 뜻한다.

1899년 조선 태조 이성계의 5대조 양무장군의 묘인 준경묘를 만들며 천은사를 원당 사찰이자 조포사로 지정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디딜방아보다 편리하고, 물의 힘을 이용하면서 물레방아보다는 설치가 쉬운 통방아는 두부를 만들 때 이용한 것이다. 두부를 만드는 절이라니 참 생소하지만 원래에서 전래된 두부는 초기에는 회귀 식품이었다. 그래서 두부를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사찰에만 있었고 두부가 맛있기로 유명한 사찰도 있었다고 한다. 자연이 좋은 곳에서 건강하게 먹는 먹거리가 나고 길이 남을 작품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다.

여행정보

힘력풍천장어

주소 강원 삼척시 정상안길 96-18
문의 033-575-0592
영업시간 11:00~22:00 매월 2,4째주 일요일 휴무

삼척해상케이블카

주소 강원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154-31
문의 033-570-4608
이용시간 성수기_ 09:00~20:00(매표마감 : 19:30)
비수기_ 09:00~18:00(매표마감 : 17:30)

천은사

주소 강원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816
문의 033-572-0221

삼척해양레일바이크

주소 강원 삼척시 근덕면 공양왕길2 (궁촌정거장)
문의 033-576-0656~7

동해와 곰솔 숲길을 감상하며 달릴 수 있는 **해양레일바이크**

옹화역과 공촌역 사이,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동해의 푸른 바다와 곰솔 숲길을 감상하며 달릴 수 있는 삼척 해양레일바이크. 삼척의 바다와 숲뿐만 아니라 코스 중간에 황영조 터널, 자연 에어컨 역할을 하는 조명 터널도 있어 삼척 관광지의 압축판이라 할 수 있다. '한여름에 힘들게 레일바이크라니!' 하며 미리 겁먹을 필요도 없다. 자동 전기장치가 돼 있어 오르막길도 크게 힘들지 않다. 중간에 초곡휴게소에서 쉬어갈 수도 있다. 5.4km의 철로를 2인승 혹은 4인승의 레일바이크를 타고 신나게 페달을 밟기만 하면 된다. 편도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짧다고 느껴질 만큼 알찬 코스. 공촌역과 옹화역에서 각각 출발하며, 도착하면 반대편 정류장까지 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이동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성수기엔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하고 가지 않으면 당일에는 표를 구할 수 없을 만큼 인기가 높다.

맛도 착하고 기부도 하는 **힘력풍천장어**

시내에서 벗어나 동네 안에 있는 힘력풍천장어는 삼척 주민이 사랑하는 맛집이다. 인상 좋은 부부와 누구에게나 친절한 아들, 2대가 함께 운영하는 곳이다. 삼척이 고향이지만 울산에서 오래 지내다 2015년 다시 삼척으로 돌아와 가게를 열면서 바로 사랑의열매에 기부를 시작했다.

“비법 뭐 별거 없어요. 장어를 바로 잡아서 바로 구워드리고, 친절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뿐이에요.”

장어는 신선도가 맛을 좌우한다. 바로 잡은 장어와 잡은 지 시간이 좀 지난 장어는 맛의 차이가 크다. 신선한 장어를 주문 즉시 잡아 손질해 쫄깃한 식감을 자랑한다. 게다가 직접 만든 소스가 장어의 느끼한 맛

을 잡고 감칠맛을 돋운다. 점심시간엔 장어 반마리가 나오는 장어 정식과 장어탕이 있어 가격 부담 없이 장어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덕분에 가게를 연 첫해부터 입소문이 났다.

“손님들에게 받은 사랑을 우리가 전부 다 가지고 있는다고 우리 것이 될 수 없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맛의 비법도, 기부도 그리 대단한 일 한 것 아닌데 더 큰 사랑을 받는 것 같아 항상 감사하며 부끄러워하는 주인장의 따뜻한 마음이 음식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

나 자신에게 먼저 나눠 줘야 남에게도 나누는 마음 생겨

나눔은 남이 아닌 나 자신에게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남에게 나눌 때 자신에게 한 것처럼 나누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돌본 것처럼 남의 감정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은 어렵지 않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서럽게 곡한 까닭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는 3일 내내 문상객이 올 때마다 곡을 하셨습니다. 물론 문상객도 함께 곡을 하셨습니다. 특히 꽃상여가 나갈 때와 무덤에 하관할 때는 무척이나 서럽게 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곡을 하시고 제게 돌아오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기도 하시고 밥도 잘 드셨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가식적이기도 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만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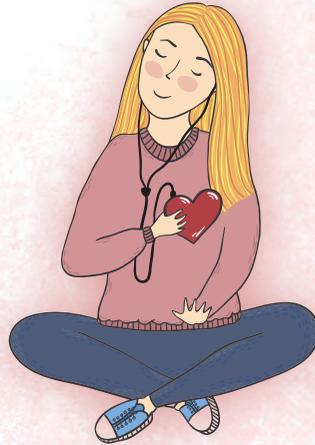
그러다 5년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에 아버지와 아내와 여동생 둘은 3일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장남이자 6대 독자인 저는 중심을 잡고 그들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3일 내내 슬퍼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문상을 오는 사람들도 제 감정을 건드릴까 봐 조심스레 인사만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몇 달 뒤 대전으로 강의를 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이문세의 '소녀'라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저는 이유 없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속도로를 하염없이 달렸습니다.

얼마 후 이유 없이 눈물을 흘렸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 어머니 장례식에서 슬픈 감정을 드러내본 적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곡을 하는 이유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곡은 형식적인 이유로도 하지만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슬픔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픈 사람에게 슬픈 감정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변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공감이자 위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감정까지도 나누려 했던 우리 조상들

우리 조상들은 사소한 감정까지도 나누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슬픈 감정을 드러내는 것 보다는 그것을 참고 이겨내는 것이 예의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감정조차도 나누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참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정작 자신의 감정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고 잘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슬픈 감정을 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슬픈 감정을 느끼지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고 드러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인데, 남을 위해서는 참고 견디며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면을 드러내면 착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인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알고 드러낼 줄 알아야 남의 감정도 이해가 되고 공감할 수도 있게 됩니다. 최근 다양한 곳에서 감정 나눔 교육을 해보니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정말 모르고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 중 자신이 아는 감정 단어를 다 써보게 하고 그것들을 긍정단어와 부정단어로 구분해 보도록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단어보다는 부정단어를 더 많이 적습니다. 그 이유를 함께 토의해 봤더니 들어오는 감정은 비슷한데 긍정적인 감정은 금방 사라지는 반면에 부정적인 감정은 한 번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오래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정적인 감정을 더 오래 경험하게 되어 더 오래 기억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저장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눔은 남을 위해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남에게 나눌 때 자신에게 한 것처럼 나누는 방법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의 감정을 먼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의 감정을 알고 나의 감정을 돌본 사람은 자존감이 향상되어 남의 감정도 살펴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자신의 감정을 돌본 것처럼 남의 감정도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내 감정이 소중하면 남의 감정도 그만큼 소중

그래서 나눔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이 소중한 만큼 남의 감정도 소중히 생각하고 나의 감정을 돌보듯이 남의 감정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서로 소통도 가능해지고 서로 신뢰도 쌓이게 됩니다. 그래야 자연스러운 나눔이 가능해집니다.

마무리하면서 다시 어머니 장례식으로 돌아가 보면, 장례식에서 상주로서의 역할과 장남으로서의 역할은 잘 했고 다른 가족의 감정은 잘 돌봤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제 감정에 대해서는 돌볼 틈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상주로 있는 장례식에 가서는 공감하는 말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먼저 나눔을 했었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도 남에게 먼저 나누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자신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100대 기업도 없고 개인 소득도 낮지만 풀뿌리 모금이 ‘강원도의 힘’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넓은 강원도. 대부분이 산지이고 도로 사정도 여의치 않아 소통의 어려움이 있다. 적은 인원으로 이 넓은 지역을 다니려면 나눔의 가치를 전하겠다는 사명감 없이는 불가능하다. 강원도를 나눔으로 하나 되게 하는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갔다.

백두대간의 중심에 있는 강원도는 산이 전체 면적의 81.7%다. 그리고 휴전선이 있는 최전방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이 입주하기 어려운 불리한 조건이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다. 1인당 소득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9위다. 인구대비 고령화율은 17.2%로 전국 3위다. 귀농인구가 유입되고 있지만 퇴직자들이 대부분이다. 기부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 이 척박한 환경에서 희망을 씨내려가는 이들이 있다.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들이다.

도내 18개 시·군 2만여 명이 정기 나눔… 군인들도 한몫

“춘천에서 삼척을 갔다 오면 하루 걸려요. 대기업이 없어 규모 큰 기부도 없죠. 하지만 가장 건강한 기부라고 할 수 있는 풀뿌리 개인기부자 비중이 높고 일반모금 비율도 전국 평균 이상이라 건강한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병설 강원 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강원도 모금의 특성이 풀뿌리 모금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는 대기업 및 중소 규모의 기업모금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강원 공동모금회는 안정적인 모금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2년부터 시작된 18개 시·군 풀뿌리 모금인 지역연계모금을 시작하게 되었다. 150만 강원도민의 참여를 목표로 시작된 지역연계모금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지난해 18개 시·군 2만 2,000여 명, 연간 21만 건, 연모금액 18억 원 규모로 자리 잡아 명실공히 강원도의 가장 중요한 모금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강원도는 개인기부자 중에서도 특별히 군인의 비중이 높다. 일반 개인기부자보다 그 수가 많다. 현재 3만 2,000여 명이 참여한다. 오세광 강원 공동모금회 모금사업팀 대리는 “강원도는 휴전선이 있는 전방이라 군인들이 많다”며 “1군 사령부를 찾아가 모금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전우를 위한 공감 가는 모금 방안을 제안해 장병들의 기부활동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강원 공동모금회에서

제안한 사업은 두 가지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전우들을 돕는 '전우사랑기금'과 전쟁 참전 용사를 지원하는 '호국영웅기금'을 강원 공동모금회에서 처음 시도했다. 지역 환경을 활용한 모금은 성공적이었다. 이들이 지난 한 해 기부한 금액만 9억 원이 넘는다.

강원 공동모금회는 기업 기부 예우 활동의 일환으로 '사랑의열매 착한기업을 만나다'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기부 감사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연재 기획보도를 진행한다. 이는 기업 기부자 예우를 강화하여 재 기부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 7월부터 강원도 내 유력 언론사와 함께 연재 보도 될 예정이다.

천사 1,004원 · 십시일반 1,010원 기부 등 다양한 모금

강원도 풀뿌리 모금도 지자체별로 특색이 있다. 강원도 몇몇 지자체는 기부천사들이라는 의미로 1개 계좌에 1,004원씩 기부운동을 몇 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다. 평창군의 경우 해발 700m에 위치한 도시라는 의미로 1개 계좌에 700원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횡성군은 십시일반



이라는 품앗이의 개념을 기부에 도입해 1개 계좌에 1,010원을 기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동해시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숫자 '3'에서 착안해 3,000원을 기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강원 공동모금회는 지역연계모금 배분사업을 통해 연간 27억 원가량의 배분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활발한 지역연계모금활동을 통해 연간 3만 8,000건 이상의 개인 및 사회복지기관에 지원되고 있어 개인과 기관 입소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매년 2회에 걸쳐 13억 원 규모의 설, 한가위 명절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면적이 넓어 현장 방문의 어려움이 있지만 발로 뛰는 강원 공동모금회의 노력은 기관 방문 횟수에서도 알 수 있다.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65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 배분사업 및 회계 교육을 진행했다. 홍미숙 강원 공동모금회 배분사업 담당은 “국가지원 대상자들은 아니지만 각 시군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이 생기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1,300여 중소기업 방문해 지역연계모금 강화”

올해 강원도의 모금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기업기부의 상당부분을 감당했던 강원랜드의 사회공헌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아 올해 지원을 장담할 수 없다. 군인 모금을 담당하는 1군사령부가 육군본부와 통합되어 충남 계룡시로 옮겨가게 됐다. 지속적인 군인 모금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모금 사업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도 강원 공동모금회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병설 사무처장은 “도내 1,300여 개의 중소기업을 찾아다니며 지역연계모금을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강원 공동모금회 신입회장으로 취임한 한만우 회장이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 중앙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만우 회장과 함께 기업 모금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모금된 성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해 나눔에 동참해 줄 것을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배분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사회복지기관과 간담회 횟수를 늘려 복지기관과 공동모금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어 나갈겠다는 포부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큰 성과를 이루겠다는 의지, 이것이 강원도의 힘이다. ❀



한만우 강원 공동모금회 회장(오른쪽)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강원 공동모금회 취약계층 올림픽 관람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참여 비율 높은 작은 나눔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어”

“강원도는 기부 액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을 수 있지만 도민들의 기부 참여 비율을 따져보면 훨씬 많습니다. 규모 큰 기부도 중요하겠지만 작은 나눔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이야기할 때입니다.”

유병설 강원 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ARS 모금이나 군인들의 기부 등 정기적이고 꾸준히 기부하는 개인기부자들의 나눔이야말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모금의 방향이라고 했다. 유 사무처장은 강원도에서 근무한 지 올해 3년째다. 충남 공동모금회에서 근무를 시작해 중앙회를 거쳐 강원도로 왔다. 대전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주말부부이지만 나눔에 대한 열정이 그를 강원도의 힘으로 바로 서게 한다.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게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강원 공동모금회는 올 한 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각 팀별로 구호를 정해 실천하도록 했다. 배분사업팀의 구호는 ‘현장과 소통하자’이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무실에 앉아만 있어서는 알 수가 없다. 지역이 넓어 이동의 어려움이 있지만 현장으로 직접 나가서 소통을 해야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모금사업팀은 ‘달성!’을 구호로 정했다. 심플하지만 메시지는 강렬하다. 목표한 모금액을 달성하는 것이 이들의 숙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맹목적인 달성만이 전부가 아니다.

유 사무처장은 “누구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그 수요를 먼저 파악해야 모금을 왜 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며 “적재적소에 모금액이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현장의 중요성을 아는 유 사무처장은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다. ‘의무를 다한 후 권리를 이야기해라’는 것이다.

“우리가 사회복지사인지 월급쟁이인지 먼저 생각하고 일을 하라는 것이죠. 사회복지사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어떻게 하면 더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모금이든 배분이든 우리가 맡은 의무를 다하면 강원도 내 복지 사각지대는 줄어들 겁니다.”



소액 모아 태산 만드는 개인기부의 잠재력

공동모금회의 연간 모금액에서 개인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32.8%. 법인기부에 비해 그 비율은 낮지만 1,969억 원(2017년 기준)에 이르는 개인기부 총액은 유수의 복지단체가 집행하는 사업비 총액을 훌쩍 뛰어넘는다. 개인기부는 소액이 대부분이지만 이것이 모여 소외 이웃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모금회 모금액 중 개인기부 비율은 32.8%... 해마다 증가 추세

2017년 공동모금회의 모금 총액은 5,996억 원. 이 중 개인기부자의 모금액은 1,969억 원으로 32.8%의 비중을 갖고 있다. 개인기부액 비율이 80%를 육박하는 기부 선진국 미국과 비교하면 공동모금회의 기금 확보는 상대적으로 법인에 치중된 편이다.

지난해 공동모금회의 기업기부금 총액은 4,027억 원으로 2016년도에 비해 225억 원이 상승했지만 우여곡절이 많은 해였다. 시국과 관련한 외적인 이유로 전경련 없이 기업기부금이 집행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며, 몇몇 기업에서는 10억 원 이상의 기부금 집행 시 이사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조항이 생기기도 했다. 경기 침체와 정치적 변화가 맞물리며 기업기부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런 리스크를 경험하며 개인 기부 규모 확대는 더욱 중차대한 사안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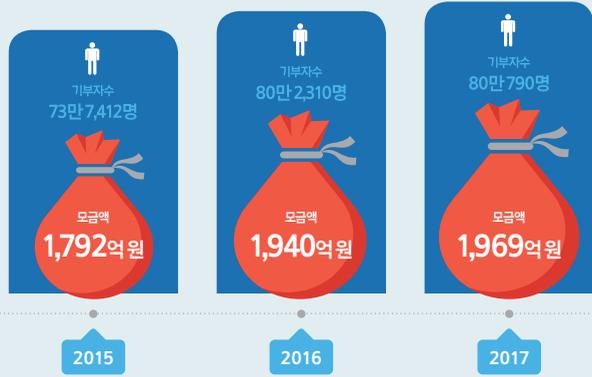
공동모금회는 창립 초기부터 나눔 미션 수행에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1억 원 이상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를 꼽을 수 있다. 1,000만 원 이상의 고액기부자의 모임인 미국의 토크빌소사이어티를 응용한 이 개인기부자 활성화 방안은 이제 회원 2,000명 시대를 맞이하며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룹으로 도약했다.

아너-착한가게-착한일터 등 개인기부 프로그램 활성화

이를 기반으로 공동모금회는 '착한일터'(월급의 일정액을 정기기부), '착한가게'(매월 수익의 일부를 기부), '착한가정'(부모 또는 자녀 이름으로 매달 2만 원 정기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소액의 개인기부자 확대에 집중했고 지난해에는 '나눔리더'(100만 원 이상 중소액 기부)와 '나눔리더스클럽'(모임·단체가 1000만 원 이상 기부 또는 약정) 제도를 더하며 나눔문화 확립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

공동모금회의 최근 개인기부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기부금액과 인원이 2014년 소폭 감소한 후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4년에 시행된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제도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기부 모금 현황



개인기부액을 상승하게 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실업과 소득 축소 등 개인의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세제 혜택 등의 제도적 개선과 사회공동체 형성을 희망하는 시민의식이 개인기부의 폭을 더 두껍게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동모금회가 개인기부자 확대에 온 힘을 기울이는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개인의 선행이 나눔문화를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지하철역 모금함에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넣어 둔 익명의 기부자, 길모퉁이 우체통에서 발견된 정성 어린 편지와 현금 10만 원 등 개인기부는 나눔의 토양을 건설하게 하며 우리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아우른다. 더욱이 일정한 날짜에 기부금을 보내는 개개인의 정성은 소액이라 해도 하나 둘 모여 출중한 복지 인프라를 형성하게 한다.

지난 3월엔 아너 소사이어티의 기부 규모를 뛰어넘는 엄청난 액수의 나눔이 이뤄지면서 개인기부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했다. ‘배달의민족’ 창업자 김봉진 (주)우아한형제들 대표가 50억 원을 공동모금회에 기부하며 ‘초고액 기부문화(Maga-Gift)’가 마침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기금이 사용되는 ‘기부자조언기금’으로 더 뜨거운 이슈가 됐던 이 사례는 성숙한 개인기부 문화 조성을 향한 변곡점을 만들어냈다.

새로운 시도, 나눔리더·리더스클럽

시행 1주년을 맞고 있는 ‘나눔리더’ ‘나눔리더스클럽’은 공동모금회가 중점을 두고 있는 새로운 개인형(단체) 기부 프로그램이다. ‘나눔리더’는 연간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약정하는 방식으로 기부금 규모에 부담이 덜하며 납부 방식도 자유로워 시행 초기부터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지난해 9월에는 인천시의원 34명 전원이 전국 최초로 나눔리더 동시 가입을 하며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나눔리더스클럽’은 동호회·동창회·팬클럽·종친회·향우회 등 다양한 친교·직능 단체가 공동모금회에 3년 내 1,000만 원 이상을 일시 기부 또는 약정하는 제도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의 여러 모임·단체가 사회공헌에 동참해 각 단체들의 활동 취지에 공익의 의미를 더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얻고 있다. 각 단체들은 자신들의 모임에 ‘나눔리더스클럽’이라는 명예를 더하며 건강한 사회공동체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공동모금회는 기부금 규모는 크지 않지만 풀뿌리 기부인 개인기부자의 참여를 소중히 여기며 나눔의 숲을 더욱 푸르고 울창하게 가꿔가고 있다.♣

한동네 4만 회원의 온라인 카페가 펼치는 아웅다웅 나눔 한마당

온라인 카페 ‘웅상이야기’ 대표를 맡고 있는 진재원(40)입니다. 우리의 나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이 어떤 나눔을 할까 궁금하시죠. 특별한 건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참여하는 회원들의 열정을 모아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웅상이야기’ 소개부터 해야겠군요. 우리는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는 웅상 지역 주민들의 온라인 모임입니다. 웅상이라는 이름은 양산시 덕계동,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이렇게 4개 동을 아울러 부르는 옛 지명입니다. 이곳에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웅상출장소가 들어서면서 웅상이라는 이름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저와 친구 둘이서 시작한 온라인 카페인데 지금 회원이 4만 2,603명입니다. 양산을 대표하는 지역 커뮤니티가 됐죠. 지난해엔 네이버 인기카페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동네 작은 행사부터 주민들의 편의 생활 안내도 가장 빠르게 전달합니다. 얼마 전 태풍 ‘쁘라삐룬’이 왔을 때 도로가 무너진 소식을 가장 발 빠르게 알린 곳이 웅상이야기입니다. 지역 방송국보다 빠르죠.

우리 카페에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역의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는 것과 직거래장터 및 프리마켓을 여는 것입니다. 카페 오픈 이듬해인 2013년부터 시작한 프리마켓은 나눔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흑한기와 흑서기를 빼고 매년 6~8번 장터를 여니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하는 거죠. 이렇게 프리마켓을 열 때마다 회원들이 내는 참가비 전액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고 있습니다. 첫해는 330만 원이 모였고, 해마다 그 액수가 늘어 올해 상반기까지 총 2,800여만 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프리마켓 참가비를 웅상출장소를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6월에는 6·25 참전 호국 영웅 초청 위안 행사에도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랑의 자장면 봉사활동도 지역을 돌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센터에 물품 기부도 하고 있고요. 웅상이야기 봉사 모임 이름이 ‘아웅다웅’입니다. 이름도 예쁘죠. 마음은 더 예뻐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보람이 큼니다.

웅상이야기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이나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돕는 데 힘쓰고 있어요. 희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너는 혼자 아니야’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서예요.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고 싶은 거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르신을 공경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 같은 건 없습니다. 웅상 주민들이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서로 위로가 되는 사랑방과 같은 나눔의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꾸준히 나눔으로 사랑을 전하는 ‘웅상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1년 만에 8명으로 성장한 해외 최초 ‘아너 소사이어티 LA클럽’

지난 6월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의 LA 지역 클럽이 발족했다. 해외에서 아너 소사이어티 지역모임이 구성된 것은 최초이다. 미국 LA 월서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진행된 아너 소사이어티 LA클럽 발족식에서는 강창근 옛지마인 회장과 김영석 3 Plus Logistics 그룹 회장의 신규 아너 가입식도 진행해 그 의미를 더했다.

공동모금회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UWGLA(United Way of Greater Los Angeles)와 협약을 맺고 ‘One Heart, Two Loves’ 캠페인을 시작하며 개인 고액기부자 개발에 주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케빈 김 뱅크오브호프 행장이 1호 LA 아너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이후 지난해 11월, 3명의 회원이 단체가입하며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가입식으로 강창근 회장과 김영석 회장을 포함해 현재 LA 지역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은 총 8명이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LA 지역 대표로 LA 1호 아너 회원인 케빈 김 행장이 위촉됐다. 김연순 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은 “오늘 LA모임을 시작으로 나눔의 파장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나아가 전 세계 한인 나눔 네트워크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동제약 소외계층 지원 위해 6억 원 전달

경동제약이 지난 7월 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저소득가구의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에 써달라며 6억 원을 기부했다. 류기성 경동제약 부회장은 이날 사랑의열매 회관을 찾아 김연순 공동모금회 사무총장에게 기부금을 전달했다. 경동제약은 이번 기부로 지난 5년간 약 16억 원을 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경동제약은 평소 자체 재단을 통해 중·고등 및 대학생 장학금, 학술연구비 등을 지원하며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자사 의약품인 ‘그날엔정’에 대해 모금회와 CRM(공익연계 마케팅) 협약을 맺고 매년 판매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고 있다.



‘갓 오브 힙합’ 콘서트 사랑나눔 기부 협약식

(주)쿤엔터테인먼트와 (주)엘림 블록체인은 지난 7월 16일 공동모금회와 ‘갓 오브 힙합(GOD OF HIPHOP)’ 콘서트 사랑나눔 기부 협약식을 가졌다. ‘갓 오브 힙합’ 콘서트는 타이거JK, 윤미래, 도끼, 비지, 더 콰이엇, 비와이, 헤이즈 등 대한민국 대표 힙합뮤지션이 함께 만드는 공연으로 9월 1일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연의 주최사인 (주)쿤엔터테인먼트 한훈 대표와 후원사인 (주)엘림 블록체인 배윤빈 실장이 참석해 콘서트 수익금을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두바이인 이브라힘 살렘, 외국인 1호 아너 가입

두바이의 천사 이브라힘 살렘(Ibrahim Salem) Design & ARchitecture Bureau CEO는 지난 6월 20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외국인 1호' 아너 소사이어터로 가입했다. 이브라힘은 2008년 한국 TV프로그램을 통해 피아노 치는 장애청소년을 알게 되었고, 직접 연락해 11년간 장애청소년의 밝은 꿈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피아노레슨, 음악치료, 점자약보교육, 작곡교육, 악보사보 등을 위해 총 1억 5,414만 7,968원을 지원해 왔다.



서울시민 건강기금 마련 위해 업무협약

서울 공동모금회는 지난 7월 5일 서울시민건강기금 모금을 위해 서울시(시장 박원순),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민건강기금을 조성해 시민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강 공동체 네트워크 구현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추진되었다. 서울시는 연합모금에 관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안내·홍보 등을 실시하며 의료재단은 기부금 모금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게 된다.

인천



인천순복음교회 장로 4명 나눔리더 동시 가입

인천순복음교회 장로 4명이 지난 7월 1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정명환)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이번 나눔리더 가입은 지난 6월 19일 인천순복음교회 최성규 원로목사가 인천 아너 소사이어터 클럽 5대 회장에 취임, 함께 나눔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나눔리더 62호로 가입한 김세택 장로는 "최성규 목사께서 평소 '효'를 통해 어른 공경, 기독교의 나눔과 사랑의 실천을 강조했다"며 "그간 기부에 관심이 있었는데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복지현장 인프라 강화 사업에 40개소 약 3억 원 지원

인천 공동모금회는 복지현장 인프라 강화 사업 전달식 및 수행 교육을 지난 7월 10일 진행했다. 복지현장 인프라 강화 사업은 인천시 소재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법인, 기관, 단체, 시설을 대상으로 기관에 필요한 장비보강 또는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총 40개 기관 및 시설을 선정해 총 사업비 2억 9,585만 3,188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기부한 6억 원의 성금으로 진행되고 있다.



희망2018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식 열어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정택)는 지난 6월 27일 오후 2시,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희망2018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다. 포상식에는 신청후 부산시 사회복지국장과 신정택 부산 공동모금회 회장, 이희길 부산MBC 사장 등 사회복지직능단체장과 수상자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수여식에선 부산 시장 표창 개인 12명과 단체 6곳, 부산시교육감 표창 단체 3곳, 부산 공동모금회장 표창 개인 6명, 단체 25곳 등에 포상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 나눔리더스클럽 1호 가입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부산 공동모금회에 1,500만 원을 기부하며 부산의 첫 부산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했다. 부산지방 변호사회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나눔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단체가 되기 위해 지난 7월 5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가입식을 갖고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11~12일 이틀간 자선바자회를 개최해 마련한 것이다.



2018 경기 아너 소사이어티 정기모임 개최

경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은 지난 7월 5일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박광재 경기 아너 소사이어티 대표 등 총 60여 명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및 회원가족이 참석했다. 이번 모임에서는 송찬영 (주)가스트론 회장, 안병철 (주)지엔씨에너지 대표이사, 석창인 석치과의원 원장 등 3명이 경기 아너 소사이어티에 동시 가입했다. 경기 가족 아너 한주식 (주)지산 회장 가족은 두 자녀의 미래 사위와 며느리를 대상으로 한 이색 가입식도 가졌다.



경기북부, 2018년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사업 시작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북부사업본부(회장 이순선)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지원을 시작했다. 지난 7월 3일부터 고양시 흰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5일까지 경기북부 10개 지역 2,600여 가정에 총 2억 원 상당의 여름용품품을 지원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선물상자는 여름이불, 쿨토시, 살충제, 제습제 등 여름용품과 스펀 세트, 국수, 라면, 비타민음료, 참치세트 등 식품품으로 구성됐다.

강원



박성환 정인그린빌 대표, 딸 돌잔치 축의금 기부

박성환 정인그린빌 대표는 지난 7월 14일 딸 박정민 양의 돌잔치 축의금 200만 원을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만우)에 기부했다. 춘천시 나눔봉사단원이기도 한 박성환 대표는 셋째 딸의 생일 선물로 다 같이 행복해지는 나눔을 선택,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환·심수경씨 부부는 “모든 이에게 베풀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춘천시 나눔봉사단장 이·취임식 가져

강원 공동모금회 춘천시 나눔봉사단이 창립 5주년을 맞아 지난 7월 11일 춘천시 퇴계동에 위치한 자스민에서 강원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과 나눔봉사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이월선 3대 단장이 취임하고 박선남 2대 단장이 이임했다. 이월선 신임 단장은 “춘천시 나눔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기쁘다”며 “소외받는 우리 아이들과 이웃을 위해 큰 힘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경남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체육대회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철수)는 지난 7월 6일 마산실내체육관에서 경남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의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앞서 각 지역의 단장과 함께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하반기 운영계획을 함께 논의했으며 경남 나눔봉사단 허영 총 단장의 제9호 나눔리더 가입식도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남도내 18개 시군 나눔봉사단장 및 실무자들과 봉사단원 150여 명이 함께 참여해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희망2018 이웃사랑 유공자 포상

경상남도도와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철수)는 경남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과 희망을 전한 기부자들을 위해 희망2018 이웃사랑 유공자 포상식을 지난 7월 12일 창원 호텔인터내셔널 5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 이날 유공자 포상식은 지난 한 해 경남 지역의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어준 200여 명의 기부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보답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CoolCool 시원한 여름나기 쿨박스 지원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현수)는 무더운 여름에 대비해 도내 어려운 노인들에게 쿨박스 2억 원 상당을 지원했다. 쿨박스에는 인건이불, 에프킬라, 쿨파스, 부채, 삼계탕 등 무더운 여름을 나는데 필요한 물품 및 식재료가 담겨 있다. 신현수 경북 공동모금회 회장은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 열악한 환경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된다”며 “기부자들의 정성으로 마련된 쿨박스를 통해 여름을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오미아코리아 안동공장, 착한일터 가입

(주)오미아코리아 안동공장(공장장 김태훈)은 지난 6월 19일 경북 공동모금회 '착한일터'에 가입하고 직장인 정기 나눔을 시작했다. 김태훈 (주)오미아코리아 안동공장장과 직원 19명은 매달 월급에서 1만 원씩, 총 20만 원을 경북 공동모금회에 기부, 공장이 소재한 안동시 남산면의 소외 이웃 2가구를 정기 후원하기로 했다. (주)오미아코리아 안동공장은 시멘트 탄산칼슘을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매년 기부를 하고 있다.



나눔실천 유공자 포상 및 배분사업 설명회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상원)는 지난 7월 18일 광주남구문예회관에서 희망2018 나눔캠페인 나눔실천 유공자 포상식 및 2019년 배분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포상식에서는 희망2018 나눔캠페인에 적극 앞장선 시민 기부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어 시민들의 성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하기 위한 배분사업설명회가 진행됐다. 설명회에는 광주 내 사회복지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해 효율적인 성금 배분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



저소득 청년 대상 삼성 스마트 쿠킹 대회 열어

광주 공동모금회는 삼성전자와 함께 지난 7월 22일 광주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지역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삼성전자 가전 제품을 활용한 '삼성 스마트 쿠킹 대회'를 개최했다. 이 요리대회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진행해 왔다. 올해는 15개 팀 30명이 참여했으며 수상팀 6개 팀에게는 청년 미래전략센터가 주관하는 창업·조리교육 기회와 광주 야시장 입점 기회가 주어졌다.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회복지시설에 차량 3대 전달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김학동)는 지난 5월 29일 광양시청 앞 미관광장에서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정)를 통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중형 승합차량(8,800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 이날 전달된 차량은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 3대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차량 45대를 지원했으며, 특히 2016년부터는 포스코 광관을 100% 사용해서 만든 티블리에어, 코란도 투리스모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GS칼텍스 노사, 방과 후 돌봄 사업 2,000만 원 전달

GS칼텍스는 지난 7월 2일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지원을 위해 전남 공동모금회를 통해 여수YMCA에 2,000만 원을 지원했다. 전달된 성금은 GS칼텍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모은 기금에 GS칼텍스 회사 차원에서 1:1 매칭해 마련된 것이다. 지원된 성금은 방과 후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귀가 서비스와 심리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전북



국민연금공단, '바리스타 양성' 전주카페 꽃심방 개소

국민연금공단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원하는 전주카페 꽃심방 바리스타 교육장이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센터장 조상진) 2층에 문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전주시에 2억 8,020만 원의 성금을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동수)를 통해 전달했다.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바리스타 교육은 국민연금 수급자와 새터민 및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20명씩 4차례에 걸쳐 80명을 교육하게 된다.



진안군, '사랑의 집' 5호 입주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에 '사랑의 집 5호'가 탄생했다. 이번 사랑의 집 주인공 박모(70)씨는 올 1월 화목보일러로 인해 집이 전소되어 갈 곳을 잃어 마을회관에서 거주하던 중 남퇴마을 이점선 이장이 자원봉사센터에 사랑의 집을 의뢰해 전북 공동모금회, 자원봉사자, 종교계 등의 도움을 받아 집을 신속하게 되었다. 입주자 박씨는 "화재로 집이 다 타 살기 막막했는데 많은 분의 도움으로 내 집을 갖게 되어 고맙다"고 전했다.



대한한돈협회 제주협회, 이웃사랑 한돈 나눔행사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양정운)는 지난 6월 22일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에서 '이웃사랑 한돈 나눔행사'를 개최하고 4,500만 원 상당의 제주산 돼지고기를 제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돼지고기는 제주 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70개소에 전달됐다.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는 '이웃사랑 한돈 나눔행사'를 2013년부터 6년째 진행해 오고 있다.



오라3동 거주 김창능씨, 나눔리더 43호 가입

제주 오라3동에 거주하는 김창능(61)씨는 지난 7월 9일 제주 공동모금회를 방문해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200만 원을 기부하고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이날 성금은 퇴직 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전달한 것으로, 성금은 제주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창능씨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주변을 돌아보며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임경순 아너, 저소득가구 의료비 지원에 1,000만 원 기부

충남 아너 소사이어터 회원인 임경순 북한강꾸꾸미 대표가 지난 7월 19일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관형)에 저소득가구의 의료비 지원에 써달라며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임경순 대표는 평소 아산시 저소득가구의 의료비 지원 등에 관심이 많아 2014년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 2017년에는 충남 공동모금회 개인 고액기부자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터에 아산 지역 3번째 회원으로 가입했다.



충남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장들, 착한가정 단체 가입

충남의 풀뿌리 나눔문화를 담당하는 충남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장들이 충남 공동모금회 착한가정 캠페인에 단체 가입했다. 충남 나눔봉사단 단장들은 지난 7월 20일 오전 11시 충남 공동모금회 대회의실에서 2018년 충남 나눔봉사단장 단장회의를 개최하고 착한가정에 가입했다. 박정숙 충남 나눔봉사단 도단장은 “기부자 발굴을 위해 힘쓰는 단장들과 나눔문화 확산을 실천하기 위해 착한가정 단체가입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충북



충북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성금 600만 원 전달

충북공공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정태순)는 지난 6월 19일 충북어린이집연합회 사무실에서 어린이집연합회 회원 85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600여만 원을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명식)에 전달했다. 이 성금은 지난 5월 24일 충북 전역에서 아이들이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공공형 푸른 공간지 나눔축제'를 개최하고 나눔장터를 운영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되었다.



한국교원대 부설고 8회 졸업생 모임 한솔길, 장학금 지원

한국교원대학교 부설고등학교 8회 졸업생 모임인 한솔길(회장 송진화) 회원들은 지난 7월 18일 충북 공동모금회를 찾아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지원에 써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모교인 한국교원대 부설고 학생 중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힘들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후배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송진화 회장은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구



홀어르신 여름나기 물품 지원 위한 성금 전달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함인식)는 지난 7월 12일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 취약계층인 홀어르신들을 위한 성금 2,500만 원을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전용만)에 전달했다. 대구상공회의소 사회공헌위원회가 기탁한 이번 성금은 대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대구 관내의 사회, 심리·정서적으로 소외되거나 외로운 홀어르신 500명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름이불 세트'를 마련,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동구에 '희망동행 우체통' 설치

대구 공동모금회와 대구 동구청(청장 배기철)은 지난 7월 18일 오후 동구청장실에서 '희망동행 우체통' 전달식을 가졌다. 희망동행 우체통은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나 본인의 어려운 형편 등에 대한 사연을 적어 넣으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수거 후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 복지상담과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우체통은 동구 관내에 48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 모금회 명예회장 추대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안기호)는 지난 7월 12일 대전시청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을 대전 공동모금회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위촉식을 진행했다. 대전 공동모금회 명예회장은 앞으로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에게 나눔 참여를 홍보하며 각종 성금 전달식 참여 등 나눔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된다.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과 소통하는 나눔도시·복지도시 대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아너소사이어티 봉사활동 진행

대전 공동모금회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은 지난 6월 27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행복마을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승호 대전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장을 비롯한 아너 회원들과 모금회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무더위에 힘들어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시원한 팔방수와 과일 주스를 직접 만들어 나누어 주었다.



전국 최초로 착한가게 2,800호점 탄생

전국 최초로 울산에서 착한가게 2,800호가 탄생했다.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6월 15일 박봉준 구암문구대표, 장광수 울산 공동모금회 회장, 김연순 공동모금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암문구 울대점에서 착한가게 2,800호 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착한가게에 가입한 울대점을 비롯해 박봉준 구암문구 대표와 가족이 운영하는 매장 5곳 모두 착한가게에 가입해 매달 30여만 원을 기부하고 있다.



동서발전, 시원한 여름나기 성금 5,000만 원 기탁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지난 7월 16일 울산시청에서 소외 계층의 여름철 나기 지원을 위한 '행복에너지 바우처' 기부 행사를 갖고 기부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동서발전의 '행복에너지 바우처'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했으며 올해부터 하절기까지 확대했다. 이번 기부를 통해 전기요금과 하계용품(선풍기, 이불 등)을 지원하게 된다.



세종 5개 사회복지기관, 7월의 산타 되어 여름용품 지원

세종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홍영섭)는 지난 7월 3일 세종시장 애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세종시 관내 복지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7월의 산타 저소득층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사업'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산타클로스가 되어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여름용품을 나눔상자에 포장하는 봉사활동을 가졌다. 나눔상자는 참여 기관을 통해 장애인, 다문화가정, 여성, 노인 등 각 분야의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어린이집 바자회 수익금 200여만 원 전달

세종시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명자)는 지난 7월 10일 세종 공동모금회를 방문해 바자회를 통해 모은 수익금 2,075,200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16개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바자회를 열어 판매한 수익금을 모아 마련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지난 2017년에도 130여만 원의 성금을 기부하는 등 아이들 인성교육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앞장서서 전개하고 있다.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p>문자기부 #9004 (한 통에 2천원)</p>	 <p>ARS기부 060-700-1212 (한 통에 2천원)</p>	 <p>온라인기부 같이가치 with kakao</p>	 <p>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p>
 <p>계좌기부 예금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p>	 <p>기념일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2)</p>	 <p>이벤트기부 즐거운 행사와 사랑 나눔을 함께 즐거보세요</p>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결심 고맙습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하였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와 지원을 통해 더 밝은 내일을 여는 사회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고 있는 아너 소사이어티는 나눔문화를 선도하고 진정한 나눔가치를 창조해 나가고 있으며, 나눔을 실천하는 국내 최대의 기부자 클럽입니다.



서울 237호

김영호 ASHIST ENTERPRISE 대표



“나눔은 시작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손길이 모여 누군가의 아름다운 기적이 되고 그 기적이 모여 지금보다는 더 의미 있는 삶과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 238호

기민정 님



“나눔은 나의 즐거움이다. 나눔을 통해 많은 사람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부를 하게 됐다.”



인천 122호

김태화 TH중부 대표



“나눔은 소통의 한 방법이다. 사람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 아너 소사이어티가 입을 통해 이런 마음을 내려 놓고자 한다.”



중앙회 허세희 (주)Cool Enough Studio 대표, 강창근 Edgemine, Inc. 회장, 김영석 3Plus Logistics Group 회장



대전 공동모금회 이수형 이촌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인천 공동모금회 윤석재 현대자동차 선학대리점 대표



전남 공동모금회 이화영 님



경북 공동모금회 임주원 은척양조장 대표



강원 공동모금회 유영순 양지말화로구이 대표



〈사랑의열매〉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난호 독자의견

First Person '문방구 아저씨' 기사를 관심 깊게 읽었습니다. '옆집에선 굶는데 나만 배부르다고 행복할까요?'



라는 기사 속 문구에 그동안 나의 행복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했던 스스로가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조영민 · 경기도 의정부시

사랑의 열매를 기다리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착한가게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번 달에는 충남 부여에서 궁남추어탕을 맛볼 수 있겠네요. 사랑의열매 덕분에 취미 하나가 더 생겼답니다. 바로 맛집 투어죠. 이런 게 '소확행'인가 봐요.

정명진 · 서울시 강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특집 기사를 읽고 이들이 당당하고 정상적인 사회 일원이 되도록 공



동모금회에서 벌써부터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정부와 지자체, 기업에서도 이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리라 봅니다.

김태완 · 서울시 용산구

참여방법

- * 이메일(E-mail: cckpr@chest.or.kr)로 보내주세요.
- * 〈사랑의열매〉를 읽은 후 소감이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 * 나눔에 대한 재미있고, 감동적인 경험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 * 〈사랑의열매〉를 가족, 친구 등에게 선물한 인증 사진을 보내주세요.
- * 〈사랑의열매〉 기사 및 편집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 * 보내실 때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독자 참여 사은품

독자의견(3명)에 선정된 분에게는 내용 소개와 함께 문화상품권(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사랑의열매 단행본 세트



우산



열매 배지, 열매밴드



USB



〈사랑의열매〉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매거진은 '사랑의열매' PC·모바일 페이지에서 e-book(전자책)과 PDF 파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하단의 '홍보자료' 배너를 클릭하면 해당 서비스 화면이 나옵니다.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www.chest.or.kr

438,000 시간

단 한 순간도 잠든 적이 없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이
할 수 있다는 열정과
해야 한다는 사명으로
제철소를 세웠습니다.

그 순간부터 포스코는
단 한 번도 용광로를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뜨겁게, 단단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한계를 넘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창립 50주년을 맞아
100년의 새 꿈을 꿈꿉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철강, 그 이상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50년의 도전!
100년의 새꿈!

Unlimit the Limit
POSCO 100

YEARS

유리병 저금통에 담긴 나눔

아이들이 용돈을 아끼고 버스비를 모아 기부했습니다.
벌써 10년째입니다. 땅끝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하고
한 아이의 아빠가 되어서도 기부는 습관처럼 이어집니다. 아빠는 아이에게
나눔을 통해 밝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법을 행동으로 가르칩니다.
땅끝지역아동센터 출신 배다현씨의 유리병 저금통이 가치 있는 이유입니다.

